

다
시,
교
회
로!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로
다시, 말씀으로 양육받는 교회로
다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로
다시, 사귄으로 하나되는 교회로
다시, 제자삼고 선교하는 교회로

물대풍산

The Well-Watered Garden

Vol. 98 | 2022. 06. 여름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운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솥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느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굴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
에서 내게 상을 치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
리니 내가 여호와와 함께
영원히 살리운다

물댄동산

통권 제98호
The Well-Watered Garden



물댄동산 제98호 표지(앞, 뒤)의
이미지제공은 청년부 품공동체
곽지혜 청년이 제공을 했습니다.

소통의 장

- | | | |
|---------|----|-------------------------------------|
| 여는 글 | 04 | 이야기의 힘, 우리는 알고 있답니다
박창운 위임목사 |
| 교육부 | 06 | 2022년 초등3부 봄 성경학교를 돌아보며
박종성 전도사 |
| | 08 | 2022년 청년부 품공동체 봄수련회 소감문
윤지현 청년 |
| | 10 | 청년부 품공동체 오시품끼
곽지혜 청년 |
| 목양부 | 13 |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소식 |
| | 14 | 우리 순 이야기 - 오순도순
김정아 집사 |
| | 15 | 우리 순 이야기 - 주품아순
이경희 집사 |
| 새가족부 | 17 | 새가족 소개 |
| | 18 | 새가족 인사 - 감사, 감사, 감사
이우재 성도 |
| | 20 | 하나님의 은혜
최연식 성도 |
| 해외선교 소식 | 21 | 잠비아에서 왔어요
이동필 협동장로 |
| | 23 | 선교지(코소보)에서 온 편지
전기은 선교사 |
| 소식 나눔 | 25 | 故 김원도 원로장로, 故 설귀연 사모
장례 예식 거행 기사 |
| | 27 | 사진으로 보는 제일소식 |

삶과 신앙

- | | | |
|--------------|----|--|
| 평신도 신앙강좌 | 35 | 죄와 율법 그리고 구원 [2]
장규현 목사 |
| 신앙생활 묻고 답하기 | 39 | 그리스도인이 제사를 드려도 되나요?
양인모 목사 |
| 신앙글 | 43 | 어쩔 수 없는 우리 인생에서
최진영 안수집사 |
| | 47 | 어떻게 예수님 얼굴을 밟을 수 있나요?
홍정우 안수집사 |
| | 49 | 교도소 담장너머 소식
한 모범수의 독후감 |
| | 53 | 크리스천은 이 세상에서,
어리석고 불쌍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권중웅 명예집사 |
| 은혜로운 찬송가 이야기 | 55 | 442장 저 장미꽃 위의 이슬
홍보출판부 |
| 5분 독서코너 | 57 | 먹다듣다걷다 |
| 연간주제 릴레이 | 61 | 아프지 않은 가정은 없다 [2]
김병년 목사 |
| 제일 논란 | 65 | 할렐루야
우정복 원로장로 |

크리스천 문화

- | | | |
|-----------|----|--------------------------------|
| 건강한 영화 소개 | 67 | 부활: 그 증거 |
| 공연 · 전시 | 69 | 우리지역 문화 · 공연 활동소개 |
| 건강 칼럼 | 70 | 오심견 (유착성견관절낭염) 이란?
심대섭 안수집사 |
| 세대 간 소통 | 72 | MZ세대의 언어 알기
김원진 청년 |
| 제일동산 게시판 | 74 |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 프로젝트 |
| | 77 | 다시 교회로 온나 메세지 |
| | 78 | 休; 사진콘테스트 광고, 홍보출판부 명부 |

이야기의 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구제일교회
박창운 위임목사

이야기의 힘. 사람들은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이야기 속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을 때, 온전히 그 이야기를 객관화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듣는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로 바꾸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힘을 가집니다. 때로 어떤 영화를 보았는데, 하루 종일 가슴이 먹먹하고 자신과 세상을 돌아본 적이 있는지요? 2004년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가 맬 김슨에 의해 제작되어 온 세상에 상영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생겨났습니다. 자신의 임신한 애인을 목 졸라 죽이고는 자살로 꾸며 완전범죄를 이루었던 댄 랜덜 리치는 바로 이 영화 속에 드리워진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보고 자수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유대인에 대한 반감을 일으킨다 하여, 또 어떤 이들은 너무 가학적이며 폭력적이라고 맹렬한 비난을 쏟아 내었지만, 예수님의 수난을 그림 그리듯 보여주고 말을 걸어온 내용에 한 살인범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통렬한 회개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렇듯 이야기 속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힘이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어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특히 이야기로서의 영화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는 단지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감독의 생각이 담겨있고, 감독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영화라는 예술 작업에 실어 “이 이야기 어때?” 하고 물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 또 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귀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비행, Fly Away Home, 1996〉. 참 좋은 이야기의 전형 하나를 말하자면 그것은 누구나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충만한

아름다움에 젖게 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스도의 수난의 이야기가 우리 모든 남녀노소에게 구속의 위대함을 보게 하는 것처럼, 때로 사랑의 이름으로 행해진 모두의 이야기도 그에 속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비행>은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에이미가 미국 온타리오에 있는 아빠 집에 오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비행기와 예술에 젖어 사는 아버지의 자유로운 삶에 에이미가 들어오자 낯선 환경의 어색함이 아빠와 딸 사이에 생겨납니다. 그러나 영화는 토지 개발업자들이 불도저로 숲을 밀어버리자 발견된 16개의 거위 알로 인해 새롭게 전개됩니다. 에이미는 알들을 거두어 부화시키고, 알에서 깨어난 거위들은 태어나 처음 본 에이미를 엄마로 인식하고 따라다닙니다. 야생의 거위를 더 이상 키우지 못한다고 금지하는 환경당국, 악덕 부동산업자들의 최후통첩도 에이미가 보호하는 사랑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에이미와 아빠는 어린 거위를 훈련시켜 남쪽 따뜻한 곳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 초경량 비행기를 타고 직접 거위들을 인도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빠와 딸 사이의 깊은 사랑이, 부녀와 거위 사이의 깊은 사랑이 오버랩되며, 사랑의 양육이 얼마나 소중한 힘인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부녀간의 사랑이 깊어가는 대목을 존스톤은 아주 탁월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버지와 딸 사이에 새롭게 커가는 사랑도 똑같이 경외감을 불러 일으킨다. 에이미가 아버지에게 왜 자신을 보러 오지 않았느냐고 문자 토머스는 ‘뉴질랜드는 너무 멀거든’ 이라고 대답한다. 이 말에 에이미는 이렇게 말한다. ‘아빠, 그건 핑계가 안돼요’ 토머스는 마침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 ‘두려웠단다. 에이미, 화가 났어. 정말 미안하구나.’ 거위들이 노스 캐롤라이나의 새로운 집으로 가는 길을 찾았을 뿐 아니라 에이미와 토머스도 집으로 돌아왔다.”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아름다운 비행>이 가족의 새로운 탄생을 이야기하며, 우리 삶의 모든 새로움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듯,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야기가 들려지는 순간,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자신의 삶을 동시에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를 들을수록 그 이야기의 의미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떨까요? 우리에게 들려진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말입니다. 글의 앞부분에서 말했듯 주님의 수난 이야기에 우리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던가요? 마틴 루터가 말했듯, 우리가 소명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상처를 보아야 한다” 라는 말처럼, 십자가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항상 들어야 할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야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살롬!** | **출판동상**

2022년 초등3부 봄 성경학교를 돌아보며



박종성 전도사

2022년의 출발점, 교육부 전체 모임을 통해 몇 년간 지속되어 오던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존재하고 있지만, 더 이상 움츠리고만 있기보다 할 수 있는 사역들을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하나씩 진행해 보는 한 해를 보내자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지만 돌아서면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늘어났고, 교육부 예배는 1월 초에도 비대면 예배만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그럼에도 초등3부는 부장님 이하 임원 선생님들과 함께 겨울 성경학교는 뒤로 미루더라도 친구들이 몇 년째 이어진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한 마음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준비하였다.

주중 방문 심방을 통해 교회학교 친구들을 한 명씩 만났으며, 그러한 이벤트들을 통해 온라인 예배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친구들과 소통하기 위한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나갔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친구들은 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등교하기 시작하였고, 이전의 상황보다는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선생님들은 신속하게 봄 성경학교를 계획함과 동시에 조금은 도전적인 선택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학교 기간 동안은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었다.

사실 이 부분에서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여전히 성경학교 전까지 비대면 예배를 참석하는 친구들이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 친구들이 성경학교 기간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있었다. 그럼에도 부서 모든 선생님들은 사순절 기간과 성경학교를 앞두고 매일 릴레이 기도를 통해 준비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시길 소망하며, 또한 외적으로도 방역이나 위생적인 부분에서 부단히 신경을 쓰고 함께 노력하였다. 그리고 성경학교를 앞둔 고난주간 중에 방문 심방을 한 번 더 진행함으로써 성경학교에 관련된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였다.

돌아보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겸허히 받아들여야 했던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자고 하셨던 선생님들의 마음들이 모여 새로운 형식의 성경학교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봄 성경학교는 부활주일부터 5월 세 번째 스승의 주일까지 (시상까지 포함해서 5월 네 번째 주일에 모든 순서를 마쳤다.) 5번의 주일에만 진행되었으며, 일정 가운데는 교육부 주관으로 진행

된 ‘온 가족 예배’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 각 주일마다 달란트 잔치와, 야외 활동 예배, 그리고 초등3부 친구들에게 잊지 못할 값진 경험이 되었을 본당 찬양 대원으로 섬기며 예배를 드렸던 ‘온 가족 예배’, 부모님께 직접 티셔츠 만들어 드리기, 마지막으로 연말까지 마음을 모아 귀한 곳에 전해질 수 있도록 만들었던 저금통 만들기까지 친구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기뻐하고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배 후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염려했던 부분이었던 비대면 예배를 멈추고 대면 예배만 진행했을 때 친구들의 예배 참석에 있어서도 감사하게 재직인원의 반이나 되는 인원이 성경학교 기간 동안 초등3부에 새롭게 등록도 해주었고, 기존 친구들도 비대면 예배가 아닌 대면 예배에 완벽하게 적응하여 지속적으로 출석해 주는 모습을 보게 하였다.

2022년 5월에도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 삶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닫혔던 교회 문이 다시 활짝 열려 친구들을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함이 크다.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늘 본이 되어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과 도전들을 몸소 보여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셨던 초등3부 모든 선생님들과 지금도 교육부 각 부서를 위해 헌신하시고 땀 흘리시는 교육부 목사님 이하 모든 전도사님들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운 시간이었다. 개인적으로는 대구제일교회에서 드리게 될 성경학교 횡수가 얼마 남아 있지 않음을 보게 된다. 곧 있을 여름성경학교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친구들과 온 맘 다해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라도 더 겸손히 배워가는 시간들이 되길 바라본다.

마지막으로 초등3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성경 속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주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온 맘으로 예배드리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늘 고맙고 너희들과 함께 하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해~” | **불렐동상**



2022년 청년부 품공동체 봄수련회 소감문



윤지현 청년1부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 37:5)

코로나19로 유독 힘들었던 연초, 청년부도 이곳저곳에서 코로나에 확진되었다는 말들이 전해졌습니다.

계획되어 있던 겨울 수련회는 물론이고, 새내기 캠프, 청년 일꾼 캠프 등 모든 일정들을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로 품공동체는 겨울 수련회가 아닌, 봄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 37:5)

을 한해 품공동체 청년들이 함께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주제 말 씬입니다.

‘생기’라는 주제에 걸맞게 생기가 돌아나는 ‘봄’에 진행된 이번 봄 수련회는 코로나19로 움츠려있던 품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생기가 시작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조혜림 아트파티플레너와 함께한 ART PARTY!

소금에 각자 좋아하는 색을 입힌 후, 내가 마음에 드는 색깔을 띤 소금을 내 유리병에 한층 한층 담으며 공동체를 느끼고, 내 옆의 동역자들을 한층 한층 만났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생기 넘치는 조별 미션 수행!

경상감영공원, 서문시장, 약령시 세 장소에서 각 조별로 주어지는 미션들을 수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오랜만에 조원들과 함께 모여 즐거운 추억을 만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특강 및 주일예배

내 안에 솟아나는 하나님의 생기를 발견하라! – 토요일 저녁 집회

나를 통해 임할 하나님의 생기를 기대하라! – 주일 청년부 예배

서성준 목사님을 통해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써 누리는 생기를 배우고, 그 생기를 원동력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내길 결단하는 복된 말씀의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평소보다 짧은 수련회의 시간들이었지만, 그 가운데 품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하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여셔서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내 옆의 동역자들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세상이 주는 생기가 아닌,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기로 올 한해 기쁨과 생기가 넘치는 품공동체, 대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 **울렷동상**

오시품끼



오후 시간에 품 공동체가
모여 끼니를 함께 하는 잔치



곽 지 예 청년2부

지난 5월 21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오랜 기간 코로나-19로 인해 품 공동체 (대구제일교회 청년부)가 모이기가 쉽지 않아 - 다시금 품 공동체가 함께 하는 시간을 위해 2018년 이후 4년 만에 오시품끼를 준비했습니다.

오시품끼란 '오후 시간에 품 공동체가 끼니를 함께 하는 잔치'의 줄임말입니다. 품 공동체 청년들이 토요일 저녁, '교회 마당'에 모여 함께 즐기 누리는 시간이지요.

이번 오시품끼의 소재목은 청년부의 2022년 표어 'Breath (생기)'에 이어 'Breath Again'이며, 키워드는 '누림'입니다.

위축된 일상들을 뒤로하고, 공동체의 내부를 돌아보며 생기를 불어넣자는 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오시품끼 포스터_Design by 배윤정 청년)



참여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품 공동체 청년 모두가 함께 누리는 시간이며, 주변의 초대하고 싶은 이들을 자유롭게 초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자의 상황으로 공동체에 나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들도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특별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함께 누리가 어려웠기에 2020-21년 품 공동체 졸업자들을 자리에 초청하였지요. 정말 감사하게도 대부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 1부 _ 함께 (~ pm7:30)
- 2부 _ 유은성 콘서트 (~ 9:30)
- 3부 _ 이야기가 있는 저녁 (~ 10:30)

이번 오시품끼는 1·2·3부로 구성하였습니다. 1부에는 모두가 ‘함께’하는 재미난 놀 거리 시간으로 함께 자리한 소그룹이 힘을 합쳐야 우승할 수 있는 게임들을, 2부에는 ccm 싱어송라이터 유은성(대표곡,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등) 님의 ‘토크 찬양콘서트’, 3부에는 야식과 함께하는 ‘이야기가 있는 저녁’입니다. 일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로 함께 하였습니다.

끼니를 어떻게 함께 하나요?

2016, 2018 오시품끼에서는 교회 마당에서 청년들이 ‘고기’를 구워 먹었었는데요. 맛있어야 맛있었지만, 생각보다 수고와 준비가 꽤 많이 필요하여 이번에는 간단하고 깔끔하게 ‘샌드위치’를 드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렇지만 모자라지 않게끔 – 언제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하고 맛있는 먹을거리 (치즈케이크, 머핀, 쿠키, 음료, 커피, 떡볶이, 치킨 등) 부스를 상시 마련하였지요.

특별히 이러한 먹을거리 (샌드위치, 치즈케이크, 커피 등) 들은 청년부 내의 ‘청년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가게들을 통해 구입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위축된 청년들의 일터를 공동체의 잔치와 더불어 함께 살려보자는 취지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맛있게, 즐겁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시품끼 어떠셨나요

! 추첨을 통해 선물을 받으러 나오는 품 공동체 지체들이 다들 너무 귀엽고, 별거 아니지만 기뻐하는 모습들이 귀하고 좋았습니다!

! 공동체를 떠나 서먹해진 지체들을 다시 돌보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좋은 날씨 속에서 찬양을 부르고 조원들과 시간을 보내니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아쉬운 것이 있다면 게임하는 시간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어용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

! 타지에서 생활하면서 지내다 오랜만에 어색하진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너무 반갑게 맞아주셔서 좋았어요! 어제 만난 사람들처럼 너무 편하고 즐거운 시간들이었고, 모두들 여전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시품끼에 있는 내내 ‘맞지, 이게 내가 살던 일상이지’ 싶더라고요. 진짜 내 자리에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한테는 언제나 돌아올 ‘품’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늘 같은 자리에서 나를 반겨주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새삼 참 감사했습니다. 항상 품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게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또 뵈겠습니다.

! 같이 하는 게임은 조원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야식 시간 키워드 이야기는 다른 조원들의 생각



이나 성향을 알 수 있어서, 다과 및 야식은 모두 입맛에 맞아서, 프로그램은 총 5시간 진행되면서 길 수도 있는 시간인데 너무 아쉬움이 들 정도로, 마무리 정리를 하면서 준비한 이들의 정성과 시간을 함께 느낄 수 있어서 모두 좋았습니다!

! 오시품끼로 공동체가 더 가까워지고 행복한 신앙생활의 모습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청년부의 모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 오시품끼 처음 가봤는데 예배 때 못 봤던 혹은 마주칠 기회가 없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날씨도 좋아서 소풍 온 기분이었습니다. 샌드위치, 쿠키, 치즈케이크, 떡볶이, 치킨 다 맛있었고 간식이나 식사 하나하나 신경 많이 쓰고 준비도 많이 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히 먹었습니다.

! 그 은혜의 현장을 글로 다 담을 수 없지만 그래도 적어보자면 오랜만에 열린 대면 행사인 만큼 몸과 마음 모두 제대로 힐링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



었습니다. “함께”라는 주제로 1부 2부가 함께 게임을 하며 웃고 떠드는 모습 그리고 유은성 님의 CCM 콘서트를 보며 한순간 한순간을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듣고 따라 찬양하는 모습, 마지막으로 야식을 먹으며 모두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정말 오랜만에 코로나 이전 시절의 모습이 생각나 마음 한편이 뭉클했습니다. 오시품끼처럼 재밌고 풍성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청년 일꾼분들의 노력과 열정에 감사합니다.

! 코로나 이후로 자유롭게 식 교제하며 찬양콘서트도 누리고 작은 천국 같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임원들 너무 고생했습니다 짹짹 오시품끼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었어요^^ 반가운 얼굴들을 만날 수 있었고 공동체 지체들은 얼굴도 볼 수 있어 좋았어요~♡ 무엇보다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맺으면서

선선한 5월, 품 공동체 청년들이 코로나 이전과 같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음에 참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부터 마무리 정리하는 시간까지 그 어느 곳에도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청년부를 위해 관심 가져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누린 기쁨이 비단 하루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귀한 디딤돌이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대구제일교회 파이팅!

불렙동상



2022년 교회학교 여름사역 일정 안내

우리의 기도와 관심이
다음세대를 세웁니다

영 아 부	7/2~3	본 교회	김은지 전도사 010-3693-5451
유 아 부	7/9~10	본 교회	김현진 전도사 010-7248-7773
유 치 부	7/16~17	본 교회	김예영 전도사 010-8343-2107
초등1부	7/22~24	본 교회 초등1부,3부 연합	김다운 전도사 010-4747-0226
초등2부	7/21~23	성주 소망의 뜨락	엄진용 전도사 010-5100-8392
초등3부	7/22~24	본 교회 초등1부,3부 연합	박종성 전도사 010-4221-5789
초등4부	7/16~17	미 정	박해진 전도사 010-2786-7375
중 등 부	7/24~25	경주 교원드림센터	박해진 전도사 010-2786-7375
고 등 부	7/22~24	본 교회	이정미 목사 010-9358-8874
청년1부	8/18~20	밀양 소명수양원	서성준 목사 010-9187-0805
청년2부	8/11~13	경주 교원드림센터	서성준 목사 010-9187-0805

여름사역을 위한 기도제목

1. 교회학교 여름사역을 통해 대구제일교회의 미래인 자녀들의 믿음이 굳세게 하소서.
2. 교역자와 교사, 자녀들이 하나 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안에 한 마음으로 연결되게 하소서.
3.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가는 발걸음, 날씨 등 제반 사항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사고 없이 감사함으로 마무리 되게 하소서.
4.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잃어버린 예배의 감격과 사랑의 뜨거움을 다시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순 이야기”

(오순도순, 순장: 노선희 권사)



김정아 집사

오순도순 : ‘정답게 이야기하거나 의 좋게 지내는 모양’

우리는 오순도순!

금요일 오전 매일성경을 챙겨 순모임을 시작한 지 벌써 8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학 시절 잠깐의 큐티 경험은 있었지만 마흔이 넘은 나이에 새롭게 시작하는 큐티는 낯설기도, 설레기도,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읽어야지... 기도를 더 해야 하는데... 마음만 먹고 있던 때에 순모임은 생각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매일 정해진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 읽으며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선명하게 알게 되었고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분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위로와 감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날엔 꾸짖으시며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에 도전받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나아가 변화될 모습을 약속하며 함께하는 나눔 가운데 저와 우리 오순도순은 성장했습니다. 어리고 연약한 순은 자라고 성장해 분순(순을 나눔)의 열매를 맺었고 지금의 오순도순 모든 순원은 큐소인 과정을 수료한 예비 순장들



로 더 크고 많은 열매 맺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을 자라게 하는 데에는 언제나 소녀 감성, 온화한 카리스마를 가지신 노선희 순장님과 사랑하는 순원들(강영임 권사, 최영숙 집사, 김정아 집사, 김선영 집사, 안미경 집사, 전미연 집사)이 서로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로 중보하고 주 안에서 정답고 의 좋게 오순도순 모여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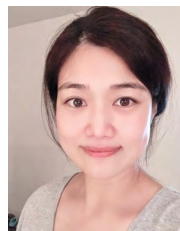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주실 주님께 푹! 푹! 푹! 두드려 보세요. 말씀과 기도,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순모임을 권해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119:105) | 불렙동상

우리 순 이야기

(주품아 순, 순장: 이경희 집사)



이경희 집사

서로의 시간을 내어 주고 모이기를
힘씀으로 믿음의 가족이 된 주품아 순! ^^

2019년이 끝나갈 무렵 초대되었던 두 분의 집사님이 다음 해에 저희 순에 본격적으로 함께 하게 되면서 지금의 6명의 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순원이라 부르는 것이 왠지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 순원들을 순 가족이라 불렀는데, 이제는 그렇게 부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2020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모임들을 못 하게 되면서 우리의 순모임도 잠시 멈추게 되었다가 5월부터 임목사님께서 알려주신 ZOOM이라는 화상회의 어플을 통해 온라인에서 순모임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졌을 때에 몇 번의 오프라인을 제외하고는 코로나19 확산이 반복되어 우리는 순모임을 온라인 공간에서 계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어색함 속에 순모임을 시작한 것이 었그제 같은데, 어느덧 2년 6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비록 순모임을 대면하며 할 수 없어 아쉬웠지만, 2년 넘게 혼란의 코로나19 시기를 지내오면서 온라인에서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이 감사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던 것이 주님의 또 다른 은혜라 생각되었습니다. 코로나19 외에도 순 가족들은 순모임에 참여 못할 여러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참여하려 노력했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어느 때는 제 개인적인 사정과 연약함으로 순장을 그만두려고도 고민했었는데, 주님께서는 순 가족들의 그런 마음들을 통해 저를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셨습니다.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 가족들의 모이기를 힘쓰는 마음들과 열심으로 인해 순장으로 계속 섬기고 있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자 함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순 가족들의 생각들도 알고 싶어 순모임을 하게 된 이유와 기대했던 점, 순모임을 하면서 좋았던 점, 아쉬운 점, 바라는 점 등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순모임에 대해 알고자 하시거나 혹여 참여함에 망설이고 계신 성도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함께 적어봅니다. 먼저, 우리 순 가족들이 순모임에 참여하게 된 동기 및 이유와 기대했던 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



해 몹시 지쳐있던 시기에 부서 (영아부)에서 광고와 순모임 초대로 인해 참여하게 되었고, 말씀 묵상한 것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싶어 참여하기도 했으며, 또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고 순종하는 삶을 배우고 싶어 참여를 결심하게 된 동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아하는 데 어려움을 나누고 말씀과 기도로 함께 무장되기를 기대하며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둘째로, 순모임을 해보면서 좋은 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이 비슷한 이들을 만나 영육 간 위로와 도움을 받은 점, 바쁘고 힘든 여러 상황 속에서 성경통독과 말씀 묵상, 기도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으려는 순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도전을 받았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해나갈 수 있었던 점, 말씀 묵상하며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실수하거나 잘못된 것들을 반성하며 다짐하게 되는 점, 서로 고백하고 나누면서 매주 말씀을 적용한 순사역을 통하여 가정과 사회에서 우리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고쳐나가며 변화려고 노력하는 점, 말씀 보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하루하루 삶에 감사하게 된 점, 주님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것을 느끼는 점, 함께 웃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함께 속해 있다는 것에 감사를 느끼게 된 점, 그리고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점, 동역자들 덕분에 행복함을 느낀 점 등입니다. 셋

째로, 순모임하며 느낀 아쉬운 점에는 각 가정의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순모임에 마음 편히 참여하는 것이 어려운 점, 또 아이와 동행해야 할 때는 순모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는 점, 순모임 시간이 주말로 변경되면서 시간을 넉넉하게 확보하는데 어려운 점 등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모임을 하며 바라는 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얼마 전부터 다시 교회에 모여 순모임을 하기 시작했는데, 앞으로도 여러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함을 사모하며 매주 모이기를 힘쓰고, 성령 안에서 풍성한 말씀묵상의 나눔과 우리들의 사랑의 교제와 성장이 계속 이어져가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함께 더 깊이 알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아이를 맡기고 온전히 집중하며 순모임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순모임에 참여하며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분순(순을 나눔)하여 각자가 순장으로 세워져 또 다른 가족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박창운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변하고 우리의 가정들이 변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세워지고, 공동체와 사회가 변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선한 영향을 주는 우리 순 가족이 되기를 바라며 소망해봅니다.

끝으로, 함께 사랑으로 섬기며 모이기를 힘쓰고 계신 각 순모임의 순장님들과 순 가족들 사랑하며 축복하며 기도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대구제일의 믿음의 가족들이 순모임에 더 많이 참여하셔서 순모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
~♥ | 율령동상



New family welcome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최정은 _ 3교구 25구역



이명림 _ 2교구 11구역



박가영 _ 1교구 4구역



권태라 _ 1교구 4구역



권동우 _ 2교구 24구역



김민주 _ 2교구 25구역



장해진 _ 2교구 21구역



조성준 _ 3교구 9구역



최지은 _ 3교구 25구역



조갑환 _ 1교구 13구역



김성진 _ 3교구 17구역



김석주 _ 1교구 3구역

새가족 인사 감사, 감사, 감사

이우재 성도



먼저 대구제일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새가족부 6주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새로운 마음으로 대구제일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 봄, 포항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아내와 만나 결혼한 뒤 대구에 정착하기로 하고 둘이 함께 섬길 교회를 찾으며 기도하던 중 우연히 박창운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며 많은 설교 말씀을 들어왔던 저였지만, 박창운 담임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새삼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왔고, 부족했던 영적 목마름이 해소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 역시 대학생 시절 대구제일교회에 잠시 다녔었다는 말에 용기를 내어 2020년 1월경 아내와 함께 대구제일교회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니 담임목사님의 설교 말씀뿐만 아니라 부목사님들의 말씀 또한 큰 은혜와 감동이 되었고, 매주 기대와 설렘으로 주일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 제가 원래 섬기던 교회가 와해되고 성

도들이 뿔뿔이 흩어져 20년 넘게 다니던 정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된 사실에 많이 힘들었고, 낯선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마치 이방인이 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색함 때문인지 은혜로운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복된 성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낯선 집 드나들 듯 피상적으로 주일예배만 수차례 다녀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3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고 대면 예배는 물론 새가족부 역시 중단되어 유튜브를 통한 영상 예배로 주일을 맞이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리니 집나온 어린 강아지처럼 몸과 마음 모두 공중에 붕 뜬 기분이 들었습니다. ‘과연 교회에 등록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조바심이 들었던 차에 다행히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되어 다시 대면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원하는 분은 2층 새가족부로 오십시오”라는 광고 말씀에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에 새가족부에 등록하여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새가족부에 등록 후 바나바인 이영숙 권사님의 도움으로 교회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고, 초신자가 된 마음으로 매주 새로운 성경공부를 하며 예수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되새길 수 있었으며, 코로나 19 가운데 직접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복되고 기쁜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다시 코로나가 심해지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어 새가족부 교육이 잠시 중단되기도 하고, 회사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기도 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새가족부 교육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었고, 2020년 2월 교회에 첫 발을 내딛은지 2년여 만에 대구제일교회 성도로 무사히 등록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던 날 아기 띠에 업혀 잠만 자던 갓난쟁이 딸아이는 어느덧 4살배기 꼬마가 되어 영아부 큰 언니가 되었고, 낯설기만 하던 교회는 어느덧 내 집처럼 따뜻한 느낌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적응



할 수 있도록 긴 시간 동안 저희 내외에게 관심을 주신 많은 권사님과 목사님, 집사님, 새가족부 식구들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구제일교회와 함께한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라는 확신이 듭니다. 기회가 허락된다면 직분을 받고 교회에 더욱 충성, 봉사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 **출연동상**



하나님의 은혜



최연식 성도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잠깐 교회를 다닌 게 전부였는데 2020년 9월경 아내가 ‘제일교회 같이 나가요’ 하는 말에 바로 그날부터 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전부터 주님께서 저를 기다려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9월이면 벌써 2년이 됩니다.

저는 늦게 나와서 다른 성도님들보다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다짐하면서 일어나면 매일 성경 듣기와 찬양을 듣고 출근하면 사업장에서 “은혜”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는 아직도 주님을 섬기면서도 부족하고 하나님 말씀도 다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 듣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나 착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교회 나오기 전 작은 기부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고 성경을 들으면서 저의 생각이 잘못됐고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길과 올바른 삶을 가르쳐준 게 주님의 말씀 즉 성경책이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 때 옮긴 사업장을 잘 되게 해주시고 저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신 주님의 큰 은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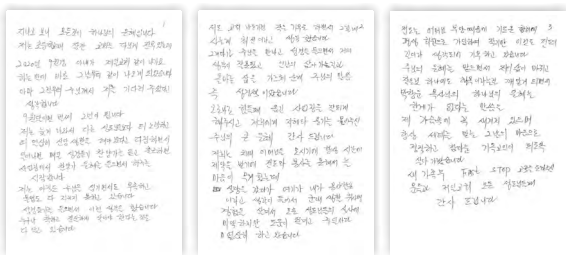
저희는 치매 어머니를 모시기에 항상 시간에 제약을 받기에 전도와 봉사를 못해서 늘 마음이 무거웠는데 식당을 갔다가 여기가 내가 봉사할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군대 생활 취사병 경험을 살려서 모든 성도님들의 식사에 미약하지만 도움이 되려고 주일마다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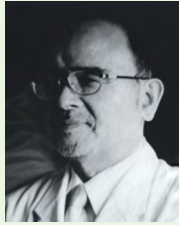


전도는 어머니 부양 때문에 기드온 협회에 평생 회원으로 가입하여 작지만 이것도 전도의 길이라 생각되어 기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저의 삶이 바뀌고 작은 것 하나에도 행복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박창운 목사님의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가 없다”는 말씀이 제 가슴속에 꼭 새겨져 있으며 항상 세례를 받는 그날의 마음으로 정직하고 참다운 기독교인이 되도록 살아가겠습니다.

새 가족부 First Step 교육을 도와주신 분들과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불행동상**





이동필 협동장로
(영어 동시 통역실)

잠비아에서 왔어요

미지의 땅에 너무도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씨를 뿌리려 간 한국 및 외국에서 온 주의 종들이 땀 흘려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이것은 오직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잠비아 학생들의 말이다.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빠른 기차가 있다니!”, “우리들이 처음 서울역에서 대구로 내려올 때 외침이었어요. 우리 모두 너무 놀라웠어요. 거리를 나오니 뻘뻘이 길을 매운 차들과 또한 저들의 질서 정연한 모습들에 놀랐어요. 식당에 가니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미 들은 바는 있지만, 막상 흰쌀밥을(rice) 대하니 저희가 먹던 주식인 옥수수(corn) 떡 밥과는 무척 달라 보였어요. 그리고 뭐 반찬(side dish)이라는, 밥 이외에 다른 것들도 많고요... 하지만 일단 뱃속에 들어가고 나니 힘쓰기에는 마찬가지였지 뭐예요.”

우리 교회에는 잠비아 학생들이 많다. 잠비아는 아프리카 대륙의 남동쪽에 위치한 나라이며(지도 참조) 1964년 영국의 식민지 지배에서 독립한 비교적 신생 국가이다. 단일 민족이 아니고 수많은 부족 집단들이 어우러진 나라가 된 국가이다. 식민지 시대 이전, 1800년 이전 시대에는 여러 부족들이 제각기 그들 고유의 문화들을 소유한 왕정 시대였으며, 근대에 와서 하나의 국가로 형성된 것이다. 부족수마저도 72 종류가 있다고 한다. 더운 기후에 땅마저 척박하여 기아 및 물의 문제 또한 심각하다고 한다.

이러한 곳에 한국을 위시한 외국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저들은 일찍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게다가 외세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분으로 알고 1991년 잠비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여 기독교국이 되었으며, 기독교의 원리를 따



라 자유 민주주의를 국시로 삼아 헌법으로 정하였다고 한다.

잠비아의 국토 면적은 남한의 약 3배이며, 인구는 약 2천만으로 대한민국의 약 절반이 좀 못된다. 잠비아의 가장 주된 산업은 구리, 납, 금 등의 광업과 상아 등이 있으며 그리고 제2의 산업은 농업, 목축업 기타 관광업 등등이다. 잠비아의 수도는 루사카(Lusaka)이고 북쪽에는 제2의 도시 느돌라(Ndola)가 있다. 유명한 “우리의 연기”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잠배지 강의 안개와 세계적인 장관인 빅토리아 호수가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 긴 이 잠배지 강을 사이에 두고 그 동남쪽에 독재 국가로 알려진 짐바위(무가비)와 국경을 대하고 있다.

이러한 미지의 땅에 너무도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씨를 뿌리려 간 한국 및 외국에서 온 주의 종들이 땀 흘려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이것은 오직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입으로만 하기보다는 몸으로 실천하는 삶의 선교를 위해 기아에 대한 대책, 질병에 대한 대책, 그리고 심지어 가장 중요한 자녀 교육 등에도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



례로 최근 신축한 한 고등학교를 들 수 있는데, 수도 루사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치푸루 쿠수(chipulukusu)’의 ‘은혜 선교 고등학교(Grace Mission Secondary School)’이다. 열악한 교육 환경의 한 면을 보여주는 것은 인구 8만에 겨우 3개밖에 고등학교가 없다는 사실은 선교사 김서연 씨의 이러한 고등학교 건립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며, 지역민들에게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음을 알 수 있다. 대통령도 무릎을 꿇고 인사한다는 자랑마저 이곳 신축 교사 개교식에 참석했으니 말이다. 과연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고 있는 것이다. 최초 등록한 학생 수만도 174명이나 된다고 하니 앞으로 저들에게 주어지는 기독교 교육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둘지 상상할 수 있겠다.

성경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가르친다. 잠비아 학생들은 영남대학교와 영남이공대학교, 그리고 경북대학교 등에 적을 두고 있으며, 대구 지역에 모두 약 30명 내외가 있다. “저희 학생들은 이곳에서 매주 토요일엔 온라인으로 한국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외로우냐고요? 물론이죠. 집과는 너무 멀어 가고 싶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 친구가 보고 싶지만 참아야지요.” “다행히 휴대폰 앱을 통해 가족과 통화할 수 있어서 참 다행” 이란다. 하지만 이국의 낯선 환경과 언어, 식생활 등 모든 게 낯설고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맙게도 몇몇 학생들은 자진하여 우리교회 영어 통역실을 돕겠다고 발 벗고 나섰다.

우린 비록 얼굴 색깔은 다르지만 주님의 한 형제자매로 반갑게 서로 교통하며 필요할 때는 여러 가지 도움을 줬으면 한다. | 불평등상



선교지(코소보)에서 온 편지

- Work for Life 사역 -



전 기은 선교사

1984년 대구제일교회 청년부 겨울 수련회에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제가 선교사로 살고 있는 것은 그때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했던 질문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의 결과입니다. 그 당시 지도부장님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신 김종택 장로님이셨고, 지도 선배로 대구제일교회에서 파송하신 이교육 선교사님, 선교부의 최진영 집사님, 최 집사님의 아내인 이은주 집사님, 특별히 이 집사님은 믿음이 어렸던 저에게 일대일 성경공부를 해주셨던 분입니다. 선교부의 이성희 선생님은 그때 청년부에서 만났고 선교사로서 저의 부르심을 확인하는데 결정적 도움을 준,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저는 가은이라는 조그만 광산촌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대구로 옮길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고 덕분에 모태 신앙인으로 어머니가 언제나 가난한 자들과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는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받은 퇴직금으로 대구에 오셔서 사업을 시작하셨고 사업 경험이 전혀 없으셨던 아버지는 당신의 퇴직금 전부를 잃으셨습니다. 이 실패가 부끄러웠고 가족들에게 미안했던 아버지께서는 돈을 벌어 오시겠다고 하시면서 어디로 가시는지 말도 없이 집을 나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결정이 저와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정서적으로 슬픔과 불안

과 두려움을 주었으며 영적으로 깊고 긴 혼란의 시간을 보내게 했습니다. 긴 혼란의 시간, 1983년 4월쯤, 제가 왜 대구 약전 골목을 갔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골목길을 걷다가 교회 입구에서 느껴지는 따뜻함 때문에 부담 없이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저의 처지를 하소연하며 울다가 마음의 위로를 받았던 은혜가 너무 좋아서 주일 예배와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고향과 같은 청년부에서 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법,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법, 묵상훈련, 기도훈련, 성경통독, 찬양의 기쁨과 노방전도하는 법을 배웠고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동계 수련회에서 하나님은 저를 특별하게 만나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삶의 목적과 소망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는 남편과 Water For Life를 통해 우물 사역을 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비영리 사단법인체는 2003년 미국 하와이 주에서 발족된 기관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 필요한 공동체에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며 그들의 진정한 필요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단체는 르완다, 우간다, 모잠비크, 짐바브웨, 브라질, 키리바시, 인도네시아, 부룬디, 동남아, 코소보에서 Water Project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의 남편 데릭은 이 단체의 창립 멤버이고 리더십의 일원으로 훈련과 교육을 전담하였는데 2008년 Water For Life Kosovo 가 발족될 때부터 코소보의 젊은 현지인 2명을 선택하여 훈련하고 프로젝트를 위

한 후원금을 조성하며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현지인들과 관계를 세우며 코소보 선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1998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국제 예수 전도단 목회 상담 사역 훈련 학교의 간사로 사역을 하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그 후에는 남편과 함께 Water Project를 소개하고 후원을 일으키며 가정 상담으로 동역하고 있습니다. 코소보는 동유럽에 있는 이슬람교와 지중해 문화가 섞여있는 독특한 나라로 2008년 세르비아로부터 독립한 인적자원과 자연자원이 많은 나라입니다. 2백만 명이 좀 못 되는 이 나라의 국민들 중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은 아직도 상하수도 시설이 되지 않은 불편한 환경일 뿐 아니라 모든 가정이 자신들의 집에 설치된 우물을 통해 식수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우물이 오염되어 식수로 사용하기에는 안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어떤 대안도 제시해 주지 않기에 그물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Water For Life Kosovo는 이런 악조건의 우물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우물 안에 전기 모터를 설치하며 집 밖에 있는 우물에서 부엌까지 깨끗한 수로를 만들어 안전한 식수가 가정에 공급되도록 현지인과 함께 하며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요되는 한 가정의 우물 개선 경비는 미화 750불입니다.

2019년 Water For Life Kosovo가 14개의 초등학교 수도 개선 프로젝트를 마치고 축하 모임을 가질 때 그중 한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잊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우리를 잊었고 우리 도시도 우리를 돌아보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잊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Water For Life Kosovo를 통해 물을 공급받으며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았고 우리는 잊혀진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저희는 Water Project를 실행할 때 몇 가지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저희는 현지인들이 스스로의 필요를 인식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그들과 함께 시작합니다. 둘째, 저희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현지인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협력하도록 격려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누구나 쉽게 배우고 개선할 수 있는 단순하고 실제적인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셋째, 저희는 현지인들이 프로젝트 비 중 최소한 10%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넷째, 저희는 Water Project를 마쳐도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관계를 지속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 스스로 하게 함으로 그들의 주인의식과 청지기 의식이 강화되고 이 프로젝트의 진짜 이유,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2008년에 시작된 코소보의 독립과 함께 시작된 우물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잘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1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코소보에서는 40가정의 우물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는 한 가정당 5명의 식구들이 있다고 가정할 때 약 200여 명이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하수도 설치가 잘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국민의 절대 필요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코소보의 농촌지역 주민들을 포함하여 이 지구의 많은 사람들이 오염된 물 때문에 고민하고 물이 충분하지 않아 죽어 가기도 합니다. 2022년 코소보에서는 50가정의 우물 개선 프로젝트를 계획했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혼자 할 수 없고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이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코소보의 잊혀진 가정에 안전한 식수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계속해서 동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 카카오 주소(KiEun Jeon)

& 이메일(kejeon@hotmail.com)

물평등상



故 김원도 원로장로 장례 예식 거행

지난 5월 3일(화), 故 김원도 원로장로께서 소천하시어 장례 절차가 대구제일교회 교회장으로 엄수되었다. 발인예식이 5월 5일(목) 오전 8시 본교회 예배당에서 이태연 목사의 인도로 진행되었는데 김위규 장로의 기도와 박창운 담임 목사의 '별처럼 빛나는 삶'이란 제목의 설교, 이신희 장로의 조사가 있었으며 유가족을 포함한 많은 조문객들이 예식에 참석하여 함께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故 김원도 원로장로는 1940년 경주 산내에서 출생해 1973년 10월 14일 집사로 장립되었다. 그로부터 16년 후인 1989년 장로로 장립되었고, 약 20년간 장로로 봉사한 후 2008년 12월 31일 은퇴하였으며, 2010년 1월 10일 원로장로로 추대되었다.

故 김원도 원로장로는 우리 교회에서 구제부, 홍보출판부, 총무부, 양육부, 장학부, 관리부, 군학원선교부, 해외선교부, 재정부, 예배부 총 10개의 부서에서 부장으로 역임했고 새 성전 건축 위원회, 선교 위원회,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했다. 또한 사회 활동으로 한국 성가협회 회장과 이사장, 라이온스 회장을 역임했다.

유가족으로는 부인 박수자 권사와 1남 2녀(김종민, 김유경, 김윤경)와 자부(옥진희), 사위(정영민). 5명의 손자 손녀들이 있다.

故 김원도 장로는 5일 장례예식을 마친 뒤 경주시 산내면 상개터길 9-4 선영에 안장되었다.

정리 : 물댄동산 편집부 | 



故 설귀연 사모 장례 예식 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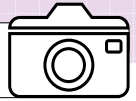
지난 5월 10일(화) 故 이상근 원로목사의 사모 되시는 故 설귀연 사모께서 소천하시어 장례 절차가 대구제일교회 교회장으로 엄수되었다. 발인예식이 5월 13일(금) 오전 8시 본교회 예배당에서 양인모 목사의 인도로 진행되었는데 김위규 장로의 기도와 박창운 담임 목사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란 제목의 설교, 김일룡 장로의 조사가 있었으며 유가족을 포함한 여러 조문객들이 예식에 참석하여 함께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故 이상근 원로목사는 1957년부터 1991년까지 34년간 우리 대구제일교회에서 담임목사로 목회 활동을 하였으며 영남신학교 설립과 대한예수교장로회 59대 총회장을 역임하는 등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큰 족적을 남긴 분이며 故 설귀연 사모의 내조가 큰 역할을 하였다.

유가족으로는 전 PCUSA 뉴욕노회 노회장을 역임했던 장남 이문희 장로, 차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중경총회장 이성희 목사(연동교회 원로목사)를 포함해 3남 1녀(이경희, 이신희)와 3명의 자부(하혜순, 김봉희, 이정인) 및 4명의 손자, 손부 그리고 5명의 손녀, 손서들이 있다.

故 설귀연 사모는 13일 장례예식을 마친 후 본 교회 부활동산에 안장되었다.

정리 : 물덴동산 편집부 | **물덴동산**



🔊 2022. 04. 24. 이아엘 첫출석 (부-이승호B 집사, 모-임미리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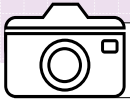


🔊 2022. 05. 01. 양승후 첫출석 (부-양현석 집사, 모-이정은 성도)



🔊 2022. 05. 29. 곽재윤 첫출석 (부-곽창섭 집사, 모-박진이 집사)





사진으로 보는 제일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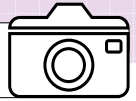


2022. 04. 15. 성금요일 예배



2022. 04. 17. 교회설립 129주년 기념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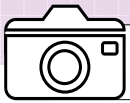


🔊 2022. 05. 22. 2년 반 만에 이루어진 성찬예식



🔊 2022. 04. 17. 부활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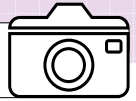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제일소식



2022. 05. 08. 온세대예배 / 가·하·만·사·성 (가족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일이 잘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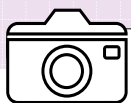


🔊 2022. 05. 22. 본당 냉난방 시스템 교체공사를 위한 공청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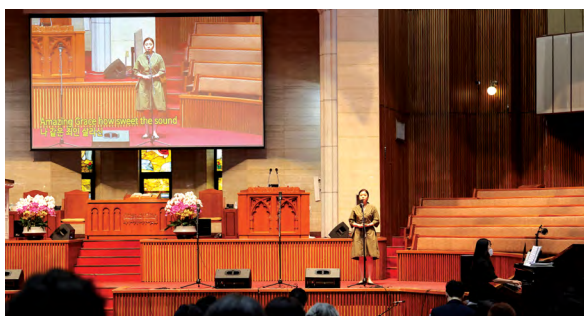
🔊 2022. 05. 23. ~ 27. 옴기와 함께하는 바이블 아카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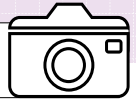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제일소식

🔊 2022. 05. 29. 코로나 종식과 일상회복을 위한 위로의 찬양 연주회



🔊 2022. 06. 05. 제일가족과 함께하는 나무엔 찬양 콘서트 (청장년부 주관)





🔊 2022. 04. 02. 무료급식 재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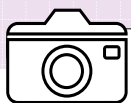


🔊 2022. 04. 14. 울진 산불 피해지역 지원(울진기독교연합회 방문 및 성금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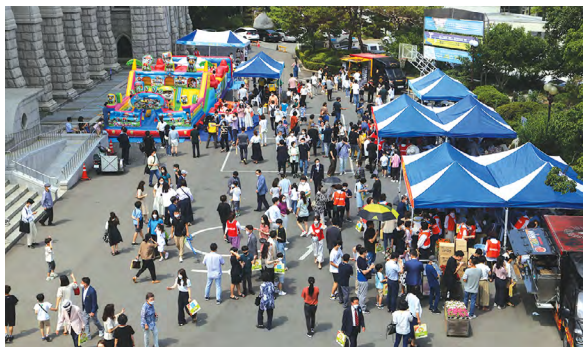
🔊 2022. 05.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 사역(심영호 선교사) 지원





사진으로 보는 제일소식

🔊 2022. 06. 19. 다시 교회로! 온나!(ON-NA)



현대인을 위한 신학 강좌 [2]

죄와 율법 그리고 구원



장규현 목사

‘죄’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죄’의 의미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교인들마다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죄’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쉽게 답하지 못합니다. 죄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죄를 벗어나려는 노력이 다르게 나타나며, 나아가 구원의 개념까지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죄: 하나님을 떠남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율법(Torah)에서 벗어난 상태를 죄라고 규정합니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렇기에 선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율법에 대해 뚜렷이 구별되는 두 입장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율법을 엄수해야 할 ‘규례’로 보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첫 번째 입장을 취했던 이들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준수 여부에 따라 죄인을 구별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준에 의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나 죄인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율법을 해석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할라카’(halakah)라는 구체적인 율



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라카는 613개 율례인데, 248개의 계명과 365개의 금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은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에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율법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죄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해석에 따라 율법은 이중적인 의미가 생깁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관점과 인간이 지켜야 되는 율례로 보는 관점입니다. 예수님에게 죄는 하나님의 뜻을 떠난 상태였고, 바리새인에게 죄는 율례를 지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의 조항을 내세웠고, 예수님은 율법에 들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들여다보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참조, 마22:37-40, 마23:23, 눅11:42, 눅18:18).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조항에 집착했지만, 예수님은 율법 전체의 정신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함축하였습니다. 율법이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죄의 개념이 보다 분명해졌습니다. 죄는 형식적인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음을 말씀하셨습니다(마5:17).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을 율법이

라는 조항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세우는 일임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출발이 되는 하나님의 뜻 앞에 새롭게 서는 것이 율법을 온전하게 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죄는 히브리어로 'ḥamartia'(하마르티아)입니다. 이는 '화살이 과녁을 벗어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죄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상태가 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삶의 목적도, 의미도 상실한 인간이 됩니다. 확장하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며, 반대로 죄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됩니다. 죄는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는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율법화의 위험

앞서서 율법의 이중적인 성격을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의 정신이 살아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반대로 율법이 경직되고 조항화될 때, 하나님의 뜻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이러한 율법의 조항에 집착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지키고 성취 가능한 것으로 환원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힘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바리새인의 ‘의’가 나타납니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의롭다.’라는 바리새적인 의에 빠지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율법화의 심각한 결과는 인간이 교만해짐과 동시에 다른 이들을 향한 정죄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것’을 함으로 거룩해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율법화의 유혹입니다. 이러한 율법화가 일어날 경우,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박제화 되어 조항으로 변해버립니다.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율법화의 예들을 쉽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적인 의에 빠지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며, 교만해집니다. 이 중적인 죄에 빠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율법에 가둔 죄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긴 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율법을 지킴으로서 담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며, 그에 따른 자발성과 기쁨의 걸음입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새로운 힘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희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윤리화되면, 죄책감만 양산할 뿐이며, 경직화되고 생명력이 잃어 버리게 되고, 자신만을 위한 교회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 하나님께 돌아감

지금까지 죄와 율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의미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구원은 죄의 상태를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말합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할 때, 진정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웃 하나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가족 하나도, 자기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자신의 세계에 갇혀서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습이 인간의 근원적인 한계이며, 죄입니다. 자아의 높은 성을 무너뜨리고 나와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며, 이는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시기에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무런 대답 없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며,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간부터 죄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것을 거창한 일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대단한 사회적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성취로 오해하는 순간 다시 율법화의 위험 속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웃을 위한 사랑, 고통받는 자를 위한 위로, 병든 자를 위한 방문, 전쟁으로 고통받는 자를 위한 기도 등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큰 사회적 성취를 해도 자신만의 세계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성취를 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빚어가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놓지 않고 붙잡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불렷동상



알쏭달쏭 성경 Q&A

그리스도인이 제사를 드려도 되나요?



양인모 목사

한국의 토착화 신앙과 가톨릭의
선교적 접근을 통해 본 제사의 의미

이 문제는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아니 조선시대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지금까지도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이며 우리의 삶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가족 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문제 중 하나이다.

신앙을 가지면서 가족 간의 불화, 특히 부부 갈등,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으로까지 극으로 치닫는 경우가 있다. 이는 교회가 가정을 지켜 주어야 함에도 지혜로운 답을 주지 못해 안타깝게도 가정 안에 상처와 아픔을 안겨준 꼴이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제사는 우상숭배이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조건 배척하고 정죄해야 할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배척하는 것은 맞다. 문제는 정죄이다. 유교 문화에서 제사 지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정죄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다.

제사 문제는 한국에 국한된 문제이기 보다 유교문화권에서 겪는 오래된 문제 중 하나이다. 16세기 중엽에 예수회 출신의 선교사 마테오 오리치(1552~1610)는 중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기 위해 들어갔다. 당시 아시아는 불교 문화권인 줄 알고 승복을 입고, 머리를 밀고 들어갔지만 막상 중국에 들어와 보니 사대부의 유교 문화가 중국에서 존중받는 것을 알고, 승복을 버리고 머리를 길렀다. 그뿐만 아니라 리치

는 중국어를 빠르게 습득하였고, 중국의 고전들과 유교의 경전들을 깊이 연구하여 선교의 접착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서 천주실의(1594)를 편찬했고, 리치는 자신의 저서에 이렇게 글을 남겼다.

“내가 수많은 중국 고전을 검토한 결과 유교의 상제는 결국 우리가 믿는 하나님(천주)이며, 단지 이름만 다를 뿐이다”

리치의 중국 문화에 대한 이러한 입장은 유교 문화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가에 대한 깊은 연구와 고민에서 나왔다. 외래 종교에 대한 의구심을 최소화하고 기독교를 편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교 경전을 연구한 리치의 선교적 방법은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복음은 문화를 적대시하기 전에 먼저 그 문화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 문화와 복음의 접착점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리치가 중국의 유교문화를 깊이 연구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제사 문제 때문이었다. 서구의 기독교 세계관에 비취보았을 때에 동양의 유교 문화인 제사는 우상숭배로 비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치는 유교를 연구한 학자로서 중국 사람들에게 제사는 우상숭배가 아닌 사회적 관습일 뿐이라 말하며 제사를 허용했고, 덕분에 중국 내에서 선교의 자유가 허락되었다.

이후 리치를 따라 들어온 예수회 선교사들은 자유롭게 중국 내에서 선교할 수 있었다. 그러나 후발 주자로 들어온 도미니칸 수도회, 프란시스코 수도회 출신의 선교사들은 중국의 제사를

보자마자 우상숭배라고 정죄했고, 예수회 선교사들에 대해서도 비난과 비판의 상소문을 로마 교황청에 보고하기에 이르렀다.

초기 로마교황청은 예수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제사 문제에 관해 우상숭배가 아닌 그들의 문화로서 보았지만 계속된 상소문에 결국 로마 교황청은 18세 초 교황의 교서로 제사를 우상숭배라 하였고, 더 나아가 천주와 상제의 혼용도 금했다. 이것은 단순한 선교사들 간의 세력싸움을 넘어 중국의 황제와 가톨릭 교황과의 싸움으로 번진 큰 사건이 되었다. 이것을 기독교 역사에서는 전례논쟁(典禮問題)이라고 부른다. 로마교황청의 교서의 영향으로 당시 중국의 황제 강희제(청나라 4대 황제, 1661~1722)도 천주교에 대한 금서를 내려 모든 선교사들을 추방하였고, 이는 동서양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게 되었다. 자국의 문화를 정죄하고 무시한 서방세계에 대한 불만과 주권 침해로서 대적하게 되었고, 동양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제국주의적 방식으로 정복하려 한 서구 기독교의 충돌은 이후 조선에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중국 내에서 예수회가 활동할 때에 조선의 유학자들은 서학을 받아들였고, 천주교를 들여왔다. 그러나 중국의 금서 정책은 곧 조선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야 했다.

19세기 말 조선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차례로 입국하고 역시나 동일한 문제에 봉착했다. 선교사들도 처음에는 가톨릭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제사를 우상숭배로 보고 정죄하였고 금지시켰다. 그러던 어느 날 스왈른 선교사

(1892)는 하나님을 믿게 된 한 기독교인이 제사를 지내야 하는 날 자정에 선교사를 찾아와 예배드릴 것을 부탁했고, 그는 신주와 제기 등 제사와 관련한 모든 도구를 태웠다. 스왈론 선교사는 "이교의 우상이 이렇게 빨리 불태워지는 것을 볼 줄 몰랐다. 이교 예식 대신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이 준비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노래하고 성서를 읽고 기도했다"라고 기록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추모 예식이다. 추모 예식은 한국의 유교문화가 기독교의 옷으로 갈아입은 매우 훌륭한 토착화 신앙이다. 개신교 선교에 있어서 이러한 토착화 신앙이 잘 발전된 곳 중 한국만큼 좋은 사례가 없다. 통성기도, 새벽기도 등도 한국의 우상숭배와 관련된 관습에서 기독교로 발전된 토착화 신앙의 모습이다.

앞서 말씀드렸듯 제사는 유교문화의 가장 핵심이다. 왜냐하면 유교 문화에서 제사는 전통적 가족 공동체를 유지하고 연대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가족을 지탱하는 제사를 무조건 적으로 적대시하는 것은 오히려 가족을 해체시킬 수 있기에 지혜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현대 사회는 가족의 붕괴가 개인주의와 도시화가 심화되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이때에 교회는 더더욱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정죄하는 방식이 아

니라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여 변화시킬 수 있을지 말이다.

먼저는 가족들을 위해 평소에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마포삼열 선교사는 제사보다 조상이 살아 있을 때 효를 행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제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신앙을 이유로 제사의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제사에 참여해서 가족 공동체로서 하나인 것을 보여주고, 그 자리에서 절을 행하지 않되 다른 방법으로 가족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찾아보자.

둘째로 가족들의 기념일을 기억하고 챙겨주는 것이다. 돌아가신 분들의 기일을 챙기는 것만큼 살아있는 가족들과의 유대관계를 위해 더욱 노력해 보자.

셋째로 안부 전화나 메시지를 통해 자주 연락하는 것이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가족들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가족들과 가까워지고 돈독해지도록 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유교의 제사가 추모예식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즉 가정의 결속력이 기독교 신앙으로 이어지도록 함으로 현대 사회의 가정해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추모예식은 가정해체와 우상숭배를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를 향한 교회의 선교적 과제이며, 미래가 달린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교회와 성도가 이 일에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로 함께 고민하며 나아가길 권면한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가톨릭은 전례논쟁으로 아직까지도 유교를 우상숭배의 문화로 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1939년 교황 비오12세는 담화문을 통해 유교의 제사는 우상숭배의 의미가 없을 경우 성도들의 참여를 허락한다고 발표했다. 즉 유교의 제사문화를 효의 개념으로 인정한 것이다. 물론 신학적으로 너무 열려 있다는 조심성이 있지만 현재 한국인들에게 있어 가톨릭이 개신교보다 좀 더 좋은 감정(이미지)이 있는 것도 이러한 과감한 선교전략이 한 몫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문화는 끊임없이 변한다. 바꿔 말해 선교의 방법도 그에 맞게 발전하고 변해야 한다.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는 갈수록 시대에 뒤처지고 소멸할 수밖에 없다. 안타깝게도 개신교는 가톨릭처럼 유교문화에 대한 오랜 고민과 논쟁 없이 선교를 서구식 신학(신앙)으로 해결하려고만 하였다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중심성을 놓치지 않되 세상을 사랑하셨던(요3:16) 하나님의 마음으로 빠르게 변화는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대구제일교회가 되길 소망한다. | 불평등상





최진영 안수집사

어쩔 수 없는 우리 인생에서

스토이가 쓴 소설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에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라고 쓰여있다. 청년부 시절 대학 캠퍼스에서 큐티 모임을 마치고 잔디밭에서 한 자매와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형제님은 걱정이 있으세요?”라고 묻기에 난 “글쎄요. 이번 학기 시험이 걱정된다고 할까요?”라고 답하니 자매는 “호호호, 형제님은 참 무난하게 살아오신 것 같네요.”라고 하였다. 그렇다. 아버지의 성실하심 덕분에 난 이 세상의 험난함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고 내가 아버지가 된 다음에야 그 무게와 깊이를 느끼고 있을 따름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그건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사실이다. 아버지가 이 땅에서 우리 가족의 삶을 지켜주셨기에 온 가족은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성실함은 악마의 유혹도 이겨나갈 수 있고 하나님도 성실함을 필요로 하신다”라는 말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온 가족을 위하여 사신 분이셨다. 하지만 이 땅에서 나를 보호

해 오신 아버지이시지만 나의 영적 목마름을 채워주시진 못하였다. 그때 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대구제일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였는데 집안의 모든 자녀가 신앙에 귀의함에 따라 아버지께서는 의욕을 잃으셨던지 당시에 하시던 사업을 접으시고 은퇴하셨다.

주말부부이면서도 교회와 단기선교 등 신앙생활에 몰두하던 나에게 “이 좋은 세상에서 왜 그렇게 사냐!”라며 나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며 긴장 관계를 유지하셨다. 결혼한 후에도 아내의 직장 생활과 출산으로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자녀 양육 등 현실과 이상의 모순을 벗어나지 못한 채 삶의 일부분을 아버지께 의지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앙도 가지시지 않은 채 선교 단체에서 사역하고 있는 형님의 평생 후원자로 그의 책임을 다하셨다. 형님에게는 평생 후원자로, 누나에게는 서울에 시집가서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셨고, 동생에게는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필요한 도움을 주셨고 나의 딸에게 사랑의

세례를 부어주셔서 티 없이 맑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정서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셨다. 코로나로 인해 입원하신 격리 병실에서 사랑하는 손녀를 찾으시고 눈물 보를 터뜨리는 손녀를 통해 할아버지의 사랑의 깊이를 보게 되었다.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실 세계에서 감당할 수 없던 우리 형제들의 삶과 생활의 빈 곳을 지혜롭게 채워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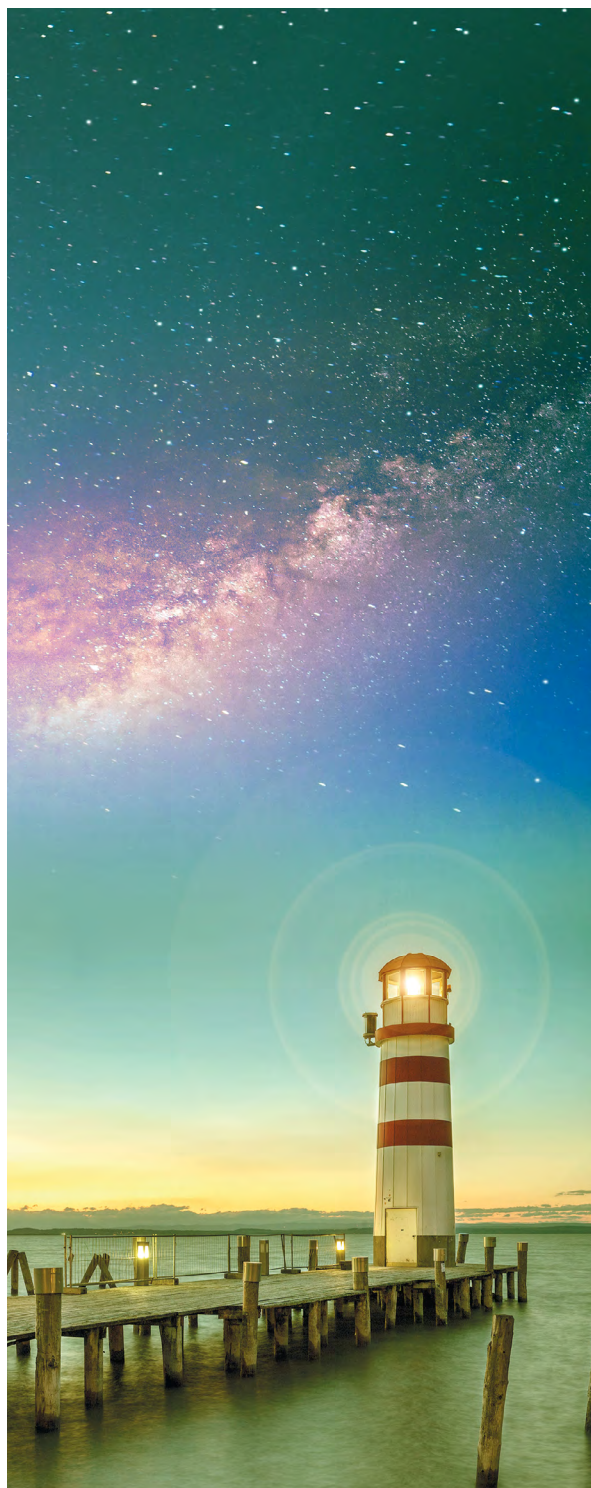
우리 모든 형제자매가 예수를 믿어서 아버님의 영혼에 대한 우리 형제들의 마음은 한결같았지만, 복음에 대하여 거부하시는 아버지의 권위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지라 난 그저 교회의 기도회를 통하여 오랜 기간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었다. 하지만 마침내 때가 차서 아버지께서는 이제까지는 내 생각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자녀들이 사는 방식으로 사시겠다고 제사를 폐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으며 그때 어머니는 형님이 봉사하시던 교회에 첫 출석을 하셨다. 2012년 6월 병원 응급실에서 어머니가 임종하실 때 난 귀에 대고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의 영혼을 위해 절규하듯 기도를 쏟아내며 어머니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떠나보낼 수 있었다. 어머니가 가신 이후 아버지는 홀로된 외로움과 고독 속에 10년을 견디시며 사셨다. 자립심이 강하신 분이지만 어머니가 안 계신 그 빈자리는 쉽게 채우실 수 없으셨다. 자

식들에게 삶의 고통을 표현하셨을 때에도 드라이브하며 외식하는 것 외에 별다른게 위로할 대안이 없었다. 노쇠해지는 육신으로 인해 점차 삶의 반경이 축소되어 마침내 집안에만 거하시게 되었을 때 “너무 오래 살았다”라는 말씀에 당혹스럽기도 하였다. 어쩌면 홀로되신 외로움과 무너져가는 육신 가운데서도 자녀에게 부담을 주시지 않으려고 버티어주시는 것만 같아 눈물이 나도록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형과 누나가 서울에 살고 동생도 사업상 서울에 거주하는 바람에 아버지 노후의 삶에 대한 무게감이 내게 더해지는 것 같아서 나도 힘에 겨워하고 있었다.

지난 3월 5일 토요일 오전에 교회에서 선교사 기도 제목을 주보에 삽입하는 작업을 하다가 요양사로부터 아버지의 식욕이 없으시고 기력이 급격히 떨어지셨다는 다급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급하게 동산병원 인근의 약국에 가서 환자 보호식을 구매하여 가보니 이제는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라는 말을 반복하셨다. 평소에 자존감이 강하셔서 타인에게 신세 지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시는 성격상 자신에게 다가온 마지막 순간을 느끼셨는지 몸부림치시다가 그다음 날 마침내 코로나로 확진되어 격리병동으로 입원하셨다. 우여곡절 끝에 119구급대에 실려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마지막 모습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렸다.

선교단체에서 발행된 사영리 등이 국내와 국외에서 전도할 때 효과적임을 느꼈지만, 예배 시간에 이상근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바로 구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하신 말씀이 그 어떤 메시지보다도 내 마음에 크게 자리하고 있다. 난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아버지의 구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기도하고 있었다. 이제 수십 년이 지나 이 땅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이 점차 다가옴을 느끼면서 아버지의 구원에 대한 인도하심에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가 격리병동에 입원하신 후 동생이 “아버지 천국 가시겠지?”라고 묻기에 난 이렇게 답했다. “사영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지. 그리고 식사 때에나 가정 예배 때에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이 우리와 함께하셨어, 그러기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막 9:40)’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영혼을 받으시리라 믿는다”라고 답하였다. 하지만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답답함이 내 마음에 남은 것은 아버지 자신의 고백을 듣지 못한 것이었다. 그런 아쉬움 속에서 운명하시기 하루 전날, 형님은 병원을 방문하여 자신이 목사임을 밝히고 면담을 신청



하였다. 2시간을 기다린 끝에 보건당국의 허락을 얻어 방역복과 고글을 쓴 채 마침내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다. “기도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하였더니 아버지는 명확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일평생 후원해 오신 장남의 인도하에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다음 날 96세를 일기로 마침내 이 땅의 삶을 마감하셨다. 아버지께서는 6.25의 전란 속에서 소위로 임관하여 대위로 전역하기까지 수많은 사선을 넘어 2개의 화랑무공훈장을 받으시고 전역 이후 3남 1녀의 아버지로서 훌륭하게 그 역할과 임무를 다하시고 국립묘지에 묻히셨다. 난 아버지의 소전을 통하여 사랑을 베풀어준 대구제일교회 교인들에게 “아버님은 교회 생활을 하신 분은 아니었지만, 자녀들이 모두 사역자로 혹은 봉사자로 헌신하도록 키우셨습니다. 입원하신 격리병동에서 목사인 큰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다는 믿음이 저희의 가장 큰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하였다. 직장에서는 “노년에도 머리가 맑으시어 이제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신체에 ‘어쩔 수 없어’라고 말씀하시고 119구급대에 의하여 격리병동으로 이송되신 후 96세의 삶을 마치셨습니다. 어머님을 먼저 보내신 후 10년간 홀로 사시다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서 떠나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다는 믿음이 유가족들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됩니다.”라고 인사하였다.

자신의 어머니를 소유하고 아버지를 대체하고픈 남자아이의 열망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이디푸스 왕(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했던)의 이름을 따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한다. 내 삶의 경쟁자고 인생 과제이셨던 아버지의 존재가 사라지자 난 해방감으로 자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앉아 계시던 빈 의자의 공허함과 더불어 함께 하였던 삶의 디테일이 마음을 힘들게 한다. 하지만 아버지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식하고 있다는 믿음이 유일한 소망이고 신앙의 귀중한 가치를 인식하게 된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죽음을 의식하는 유일한 존재라고 한다. 삶과 죽음, 이는 우리의 인생 과제이면서 내게 보여주셨던 아버지의 삶이 신앙과 아울러 남은 삶을 살아가려는 내게 귀중한 좌표가 되어주고 있다. “아버지 잘 가세요.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그동안 가족을 이끄시느라 애쓰셨어요. 그리고 외로운 삶을 견디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이제 육신에서 벗어나 평안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쉬세요.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를 만난 것이 내 인생에서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 불행동상

어떻게 예수님 얼굴을 뵙을 수 있나요?



홍정우 안수집사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 굵 높은 하이힐을 신고 못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마치 모델처럼 걷고 있는 예쁜 숙녀를 보고 있을 때, 순간 옆자리에서 주먹이 날아왔다. “예쁜 여자만 보면 사족을 못 쓴다니까 운전이나 똑바로 하세요” 옆에 앉은 아내가 앙칼진 목소리로 쏘았다.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쳐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낮익은 얼굴이었다. 어디서 보았을까? 집에 와서도 계속 기억을 더듬었다. 아! 그래 생각났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의 일이다. 새로 부임한 중등부 부장은 중등부 부흥을 위해서 보험회사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중등부실 게시판에 각반별 출석상황을 막대그래프로 표시해서 각반별 출석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여 각 반별로 경쟁을 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출석률이 높은 반은 피자나 햄버거를 지급하였다.

각반 담임선생들은 학생들에게 피자나 햄버거를 먹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였다. 손·발 빠른(?) 선생님들은 출석률이 저조한 학생은 가차 없이 제적 처리를 감행해서 출석률을 높였다.

내가 맡은 반에 민지라는 여자아이가 있었다. 형클어진 머리카락. 허스키한 목소리. 누가 봐도 선머슴아 같아 보였다. 5명인 우리 반에는 민지와 민지 친구가 문제였다. 그나마 민지 친구는 출석률이 좋은 편이었다. 하지만 민지는 거의 3개월에 한번 꼴로 나타났다. 우리 반 아이들은 민지 때문에 피자와 햄버거를 먹지 못해 불만이 가득하였다. 어떤 아이는 나에게 민지를 제적시키라고 하였다. 나는 도저히 그럴 수 없었다. 나에게 맡겨진 아이를 그깟 피자나 햄버거가 뭐라고 자른다 말인가! 나는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과 어쨌든 끝까지 가고 싶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일날 아침 종종 아내에게 카드를 달라

고 하였다. 아내는 집에 애들은 맛있는 거 잘 사주지도 않으면서 교회 애들은 자주 햄버거나 피자를 사준다고 투덜거렸다.

몹시 추웠던 11월 주일로 기억된다. 민지가 갑자기 나타났다. 얇은 티셔츠와 떨어진 청바지를 입고 맨발에 삼색 슬리퍼를 질질 끌고서, 슬리퍼 사이로 보이는 발가락이 파래 보였다. 나는 총무부에 가서 학생 선물용으로 준비해 놓은 예수님 캐릭터가 그려진 양말을 몇 켤레 얻어서 추운데 양말을 신고 다니라며 민지에게 주었다. 그러고는 한 달 뒤에 민지가 나타났다. 나는 민지의 얼굴보다는 발을 먼저 보았다.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여전히 맨발에 삼색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날씨가 추워 발은 더욱 새파랗게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지야 선생님이 저번에 준 양말 어떻게 했어?” 돌아오는 대답은 나의 머리와 가슴을 쿵 하게 때렸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선생님 어떻게 예수님 얼굴을 밟을 수 있나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예수님께서 옆에 계셨더라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이 아이에게 이러한 신앙이 있었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살면서 내가 무시당하고 나의 자존심이 짓밟히는 것은 참지 못했으면서 예수님의 이름과 인격이 짓밟히고 때로는 내가 짓밟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적이 어디 한두 번이었던가. 나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교회를 1년에 4-5번 나오는 중학교 3학년 학생보다 신앙이 더 못하였던 것이다. 나는 “추운데 양말을 꼭 사 신어라”라고 하고는 받지 않으려고 손을 뿌리치는 민지의 손에 몇 만 원을 쥐여 주었다.

졸업을 앞둔 한 주 전에 민지가 나타났다.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여전히 슬리퍼는 신고 있었다. 하지만, 발에는 따뜻한 양말을 신고 있었다. 그날 우리 반은 피자를 먹으러 갔다. 나는 민지에게 다음 주에는 졸업이니깐 꼭 나오라고 신신당부하였다. 민지는 졸업을 하는 주일날 친구 두 명을 더 데리고 나왔다. 교회에 1년 동안 다섯 번 나온 아이가 친구 세 명을 전도하고 고등부로 진급했다.



추운 겨울 양말도 신지 않고 다니던 선 머슴애 같은 애가 세월이 흘러 저렇게 변했다니 나는 많이 놀랐다. 혹시 운 좋게 민지를 만날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내의 폭력과 등쌀에 굴하지 않고 피자 먹으러 가야겠다. | 불평등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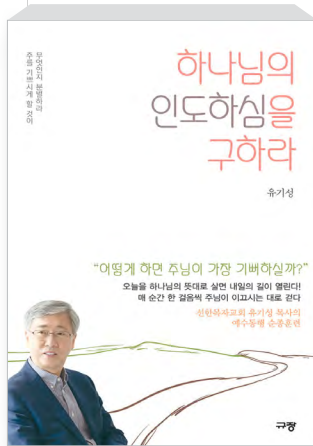
교도소 담장너머 소식

한 모범수의 독후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를 읽고서(독후감).

지은이 : 유 기성.

펴낸곳 : 규장.



상주(교)에서
이 ○ 영_.



이O영 형제는 현재 S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이다. 오랫동안 본교회가 섬기는 대구교도소에서 함께 힘든 신앙생활을 하면서 몰라보게 믿음이 향상된 형제 중의 한 분이다. 그동안 특수선교팀이 실시하고 있는 성경쓰기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크게 체험하고 그 열매의 표로 함께 하는 동료들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형제로,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형제이기도 하다. 일여 년 전 대구를 떠나 S 교도소로 이감되면서 맘을 잡지 못해 심히 방황하였으나 끊임없는 권면에 다시 옛 신앙을 되찾고 지금은 모범수까지 되었다. 특수선교팀이 자매를 맺고 있는 형제들께 특별히 지급하는 겨울 내의비를 본인이 쓰지 않고 내복이 없어 힘들어하는 옆 동료들께 선뜻 돌릴 정도로 그 믿음이 몰라보게 가파른 성장을 한 것은 물론 교도소내 전도에도 힘쓰고 있다. 이 독후감은 금번 자매 형제 모두에게 넣어준 신앙 서적을 그가 감명 깊게 읽고 쓴 독후감이다. (김위규 은퇴장로)

물, 공기, 태양.. 이들의 공통점이라 함은 인간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생태적, 과학적, 본질적인 존재라는 점이다. 이것들이 없는 인간은 상상할 수가 없고, 살 수도 없고, 또 이것들로 인간의 몸이 구성된 것이 아닌가. 인체의 70% 가량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산소로 호흡하며, 태양의 빛으로 무기를 얻고 낮과 밤을 인지 하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태양계에 있는 지구에 사는 인간이라는 이유로 누리고 있는, 어쩌면 당연하지만 감사한 존재임을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인간들의 망각인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보자. 너무나 당연하게 해 왔기 때문에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모르는 것이라면, 이들의 존재가 없다면 인간들은 살 수가 없지 않은가? 물이 없고, 공기가 없고, 태양이 없다면 인간은 한 순간도 버틸 수 있을까?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서론으로 끝까지 정리한 이유는 바로 우리를 신앙이 비슷하다고 지은이가 보았기 때문이다. 또 책으로 써왔던 필자의 '알림' 이라고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현재의 우리들 신앙 생활을 살펴보자. 예배를 드리는 주일을 기준으로 나머지 날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고, 그분께 감사를 표하고, 그분의 어린 양으로서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말씀을 실천했다고 할 수 있는지, 또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당연하게 여겨거나, 더 안 좋게는 존재 자체를 부정해 왔던 것은 아닌지!

이 책에서 다뤘었던 주된 내용이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여 의심 하고, 가벼이 여긴다는 점이였다. 성경에서 나왔던 '성령'의 형태들도 때론 자그마한 불의 형태로, 때론 말씀의 소리로, 다른 한 쪽으로는 기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는가? 물론 인간의 생애 중 이러한 광경을 겪는 ^{몇몇} 손에 꼽을 만큼 없다. 그렇다면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정말 믿고 있는 것이 맞는가? 속되게 '말로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서슴 없이 던진 이유는 책으로 보았던 상황과 내 주변이 거의

같이 때문이다. 책에서 몇가지 사례로만 볼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순수한 마음’에서 드리는 기도인지 아니면 무엇하나라도 ‘바라고’ 하는 기도인지를 자주 질문을 했다. 내가 책에서 이 부분을 읽을 때 간짜 당했던 점은 두 가지인데, 먼저는 기도를 드리고 난 후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이나 내 기도를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을까 하는 ‘보상 심리’와 ‘인정’을 요구하는 마음이었다. 물론 요즘 하는 말로 ‘없는 것 보단 나아’라고는 말을 하겠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주기적으로 이런 말을 하겠다고 하자. 이를 좋게 생각하면 요구사항을 알리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헐박이 아닌가! 이런 이유들을 제쳐두고서라도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천지를 창조 하셨고 만물을 탄생 시키신 분이다. 즉 우리들 인간도 태어나게 하셨다는 뜻이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있고 생활할 수 있게 하셨다. 조건 없이 우리들을 자신의 어린양이라 부르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 아닌가! [○]예수님을 통해서 [†]클라우디아에게 기적을 보이시고 모든 인간들을 격의 없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순수하게 했는가? 또 기도 후에 달라진 모습들을 생각했었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기도를 후회하거나 근심을 가진 적이 없었나 하는 점들에 내 기도를 회개하게 되었다. 이 책의 자은이도 ‘내 기도에 대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한 것에 대해 헛갈리는 상황이 많았다고 했다.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또 기도했더니 다른 방법으로 답을 주신다고 적었다. 그분을 오롯이 믿고 드리는 ‘순수한 기도’에 결국 어떻게든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조건 없이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데, 우리는 왜 기도에 ‘조건’을 달고 있는지 되돌아보며 이제는 순수한 기도를 올려야 하겠다.

그 다음은 다름 아닌 ‘몸소 체험을 해야 느낀다’라는 점이다. 이는 기도에도 있어서도 그렇지만 더 크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몸으로 느끼지 못하면 의심한다는 점이다. 정말 여러분들께서는 마음속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 적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적어도 이 책을 읽기 전에 저는 기도를 드릴 때나 그 후에 응답이 없다는 이유로

실망감을 드러낸 적이 있었던 것 같다. 물론 성경이나 간증을 통해서도 나왔던 성령의 발현을 보면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느끼지만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느끼지 않는 이상 존재를 인정하기 힘든 것이다. 특히 이 같은 믿음의 균열은 기도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라. [†]하나님이 이런 마음들을 정말 모르는 건지, 또 이러한 상황들도 이미 알고서 계시를 하시는 건지 말이다. 조금 더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셔서, 언제 도움을 주시고 언제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지 말이다. 그렇기에 기도를 올릴 때에도 기도에 대한 응답보다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믿음과 사랑, 그 사랑에 대한 내 실천과 그 말씀을 전도하는 일까지 그저 묵묵히 해내면 될 것 같다. 감히 한 날 사람 중 하나인 내가 단언 하건대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이다. 여러분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기도드리는 지를 또 교인으로서 얼마나 주님께 봉사하고 자신의 말씀을 알리지 말았다.

사실 이 책에 쓰인 훌륭한 다른 소재들과 카테고리가 많지만. 유독 내가 기도에 집착하다시피 하며 독후감을 작성한 이유는 기도가 신앙 생활의 기초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배에서 드리는 기도도, 시간 맞춰 드리는 기도도, 또 생각할 때 드리는 화상기도 마저도 신앙 생활에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하루를 끝내는 것이 기독교인의 일상적인 생활일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과연 내 자신에 대한 반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 책의 지은이 역시도 '자신의 기도가 때 묻은 것이어서 후회한 적이 있다'고 하였는데, 사실 나의 경우는 몇 배는 더 많은 것 같아 반성하게 되었다.

앞서 말 했듯이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 여러분의 노력과 신앙, 믿음, 사랑을 모르시지 않는다. 그러니 묵묵히 기도하고 사랑하라. 그리고 또 바보 같이 맹목적으로 그 분을 위해서 헌신하여도 좋을 것이다. 주님께서 조건 없이 사랑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조건 없이 [†]하나님을 믿고 그 분의 말씀을 널리 알려야 하지 않겠는가!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에서, 어리석고 불쌍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권종웅 명예집사

사도바울은 당시 선진국(先進國)인 그리스(Greece)의 부유층이 모여 사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라고 했다(고린도전서 15:19, 새 번역). 말씀을 역(逆)으로 표현하면, 크리스천들이 바라는 것은 천국의 영원한 삶이기에,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

예수(Jesus)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은 창조주(創造主)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Messiah)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믿고, 십자가의 대속(代贖) 사건과 부활(復活)의 역사적 사건을 믿으며, 천국의 소망(所望)을 지니고, 이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면서 산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같은 복음(福音)은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말씀으로, 기독교의 경전(經典)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크리스천은 이 복음을 자신의 생활 가운데서 구현(具現)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노력해야 마땅하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크리스천은 세상의 가치관(價値觀)이나 시선(視線)으로는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다.

사도바울은 크리스천들에게 가난한 사람들과 경제적으로 평형(平衡, balance)을 이루며 살라고 가르친다(고린도후서 8:13-15, 새 번역).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적극적인 윤리관(倫理觀)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어라 하신다(마태복음 5:39, 새 번역). 뿐만 아니라 항상 겸손해야 하고 남을 배려하며 화평(和平)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다. 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어 저자세(低姿勢)로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약자(弱者)로 알보며, 어리석고 불쌍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크리스천에게 우리만이 아는 원대(遠大)한 꿈과 희망이 있다. 아무나 받아들일 수 없는 간절(懇切)한 소망(所望)이다. 장차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천국(天國)에 대한 꿈이다. 그곳은 질병과 고통과 슬픔이 없고 안타까움이나 서러움도 없으며, 두려움과 미움과 시기함도 없는 곳으로, 항상 기쁘고 자유(自由)로우며, 모든 것이 새롭고 아름답고 풍족하여,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낙원(樂園)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들, 우리의 천국 소망을 두고 정신(精神) 나갔다고 힐난(詰難)한다. 세속(世俗) 사회에서 단순한 위로의 차원으로 얘기할 수 있는 하늘나라를, 실재(實在)하는 천국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신앙고백(信仰告白)을 우스갯소리로 치부(置簿)해 버린다. 사도바울도 자신을 신문(訊問)하는 베스도 총독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傳)하다가 미쳤다는 힐난(詰難)을 듣게 된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날 우리들처럼 일상에서 부활이나 천국을 금기어(禁忌語)로 여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전(傳)하고, 또박또박 변호(辯護)까지 하고 있다(사도행전 26:24-25, 참조). 이는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본받아야 할 중요한 지점(point)이다. 우리는 하루빨리 천국 도피적(逃避的)인 경향(傾向)에서 벗어나야 한다.

크리스천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는 현실(現實) 도피가 아니다. 오히려 천국을 바라보며 희망을 갖고 선(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크나큰 계기(契機)가 된다. 또 천국을 바라기에, 주어진 달란트를 게을리하지 않고 성실(誠實)하게 살아갈 수 있다. 천국은 우리의 본향(本鄉)이다. 하루빨리 천국 지향적(指向的)인 생활 패턴(pattern)으로 바뀌야 한다. 예수를 믿는 근원적인 이유나 목적은, 결국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아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천국이 없는 십자가나 부활은 허망(虛妄)할 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 세상의 나그네 생활에서는 비록 어리석고 불쌍하다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서는 지혜로운 자(者)가 되어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크리스천들은 모든 소유(所有)를 팔아서 보화(寶貨)가 감추어진 밭을 살 만큼, 귀중한 복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者)를 지혜롭게 하신다고 천명(闡明) 하셨다. 우리는 사명(使命)의식(使命意識)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측은지심(惻隱之心)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일에 받은 달란트대로 힘써야 한다. 또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우리 사회의 온갖 부정부패(不正腐敗)와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정의(正義)를 바르게 세워 나가야 한다. 크리스천은 이러한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다. 최후의 심판에서,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 수는 없다. 불렙동상

은혜로운 찬송가 이야기

442장 저 장미꽃 위의 이슬

C.A.Miles 작사 · 작곡; 《통일찬송가, 1983》 499장



작사·작곡자 C.A.Miles

보통으로

1. 저 장미꽃위에이 슬 아직 맺혀있는그 때 에
2. 그 청아한주의음 성 우는 새 도잠잠케 한 다
3. 밤 깊도록동산안 에 주와 함 께있으려 하 나

귀에 은 은히소리 들 리니 주 음 성분 명 하 다
내게 들 리던주의 음 성이 늘 귀 에쟁쟁 하 다
괴론 세 상에 할일 많 아서 날 가 라명 하 신 다

후렴

주님 나 와동행을 하 면서 나를 친 구삼으셨 네
우리 서 로 받은그 기쁨은 알 사람 이없도 다

개인적으로 특별히 이 찬송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수양회로 주암산 기도원을 갔을 때 여름날 새벽 미명 「저 장미꽃 위의 이슬」 찬송을 부르던 중 구원의 확신과 함께 그 기쁨이 충만해 옴을 느낀 찬송이어서 추천해 본다. (홍보출판부 김승훈 집사)

이 찬송은 일찍이 《부흥성가, 1930》 233장에 처음 채택되었는데, 《신정찬송가, 1931》 275장에서 대폭 수정되었다.

이 찬송은 미국의 찰스 오스틴 마일즈(Charles Austin Miles, 1868~1946)가 요한복음 20장 11~18절의 말씀에 의지하여, 무덤을 찾은 마리아가 회상하는 형식으로 부활의 아침을 노래한 찬송으로서, 1912년에 작사·작곡한 것이다.

작사·작곡자인 찰스 마일즈(Charles Austin Miles, 1868~1946)는 1868년 미국 뉴저지주의레이크허스트(Lakehurst)에서 출생하였으며, ‘A.A. payn’이라는 아호를 사용하였다.

필라델피아 대학의 약학과를 졸업하고,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더 공부하였다. 1892년 약사의 길을 버리고 복음찬송가 작사자로 헌신하였으며, 홀맥출판사(Hall-Mack Company)에서 「들으라, 예수님의 음성」 ‘Listen Jesus’ Voice’ 라는 복음찬송가를 출판하였다. 그리고 홀맥 출판사에 입사하여 37년 동안 편집과 영업을 담당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내가 복음찬송가 작가로 알려지는 게 정말 자랑스럽다. 내 모든 세속 욕망을 버리고 이에 헌신함으로써 주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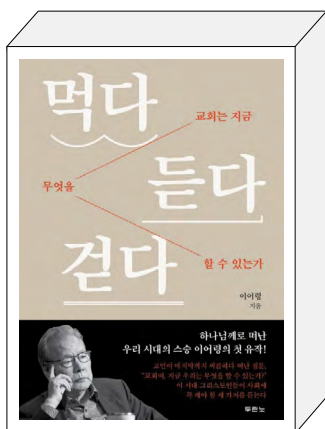
이 찬송은 홀맥 출판사에서 낸 《복음의 메시지》 ‘The Gospel Message, No.2, 1912’ 44장에 처음 실렸다. 이어서 합본으로 낸 《복음의 메시지(1~3권)》 ‘The Gospel Message 1-2-3 Combined, 1915’ 에도 실렸다.

곡명은 「동산에서」 ‘IN THE GARDEN’으로 처음 발표 당시는 여성 2중창으로 절(phrase)을 부르다가 후렴에서 합창하도록 작곡하였는데, 《통일 찬송가, 1983》 499장에 실릴 적에 「모든 곡조는 4성부로 한다」는 원칙에 따라 당시 음악위원장이었던 나운영 장로가 4부로 편곡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다. 불렙동상

〈이상 출처: 오소운 목사. 알기 쉽게 쓴 21세기 찬송가 해설. 성서원〉

먹다 듣다 걷다

얼마 전 하나님께로 떠난 우리 시대의 스승,
이어령의 첫 유작! 고인이 마지막까지 씨름하다 떠난 질문,
“교회여,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먹다 듣다 걷다

- 교회여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저 자 _ 이어령

출판사 _ 두란노서원

출판일 _ 2022년 3월 23일

생존과 소통이 위협받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꼭 해야 할 세 가지를 듣는다!

‘기독교가 사회에 무슨 역할을 해줄 수 있는가?’ ‘우리가 하고 있는 대 사회적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없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이 책은 시작되었다. 우리 시대의 스승 이어령은 지성에서 영성으로 발을 디딘 후, 성경적 기초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교회 안팎에서 깊은 혜안을 다양하게 내놓았다. 기독교의 대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질문 앞에 저자는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의 방향을 되짚어보기 위해 세 가지를 주목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익숙한 교회를 향해 저자는 “예수님의 생애는 대단히 역동적인 사건”임을 언급하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역동성”으로서의 기독교 정체성을 세 가지 동사로 제시한다.

‘먹다 듣다 걷다’ 세 주제는 결국, 현대교회가 비껴갈 수 없는 현대인의 트렌드와 욕망과도 연결되어 있기에, 교회와 성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경적 역할을 하는 방식과 방향성을 짚어 나간다. 특히 철저하게 성경을 기초로 하되, 저자의 풍부한 식견과 통찰로 겸손한 제안을 아끼지 않는다. 교회의 문제나 불충분한 자기 역할을 비판하기보다 달라져야 하고 시도해야 하는 영역을 다루는 것이 기존의 교회 역할론과 확

실한 차이점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지 우리를 배불리 먹게 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며, “물질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가치를 제시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데 있다”라고 기준점을 제시한 저자는 “진정한 복지는 감사 기도에서 시작”이라고 설명한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 무엇을 먹이고 무엇을 소통하며 무엇을 함께 해야 하는지 분명한 답을 제시한다. 나눔과 구제, 대 사회적 정체성을 두고 고민하는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에게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반드시 자문해야 할 대명제를 “이삭 줍는 사람들” “만중”과 같은 다양한 명화와 인문학적 통찰을 곁들여 하나씩 풀어놓는다. 고인이 된 저자가 마지막까지 씩씩하다가 떠난 이 질문과 답을 통해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길을 모색하는 한국 교회가 함께 고민하고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프롤로그

이 책은 몇 년 전에 열린 제3회 기독교 사회복지 엑스포 ‘주제 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콘퍼런스에서 “한국교회 대 사회적 섬김에 대한 평가와 한국교회 미래를 위한 통찰”이라는 주제 아래 ‘먹다’, ‘듣다’, ‘걷다’ 3가지 동사로 진정한 의미의 복지, 교회가 해야 할 복지에 대해 강의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할 일을 3가지 동사로 이야기하는데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기독교는 존재

론적인 관점에서 대부분 명사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영생’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면서 기독교의 상징적 키워드를 제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 가운데 우리의 일상 현실 속으로 성육신하시고 그로써 역사의 일부가 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생애는 대단히 역동적인 사건(event)이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예수님의 존재와 가르침을 압축적인 명사로 규정하게 되면 도덕적 덕목으로 축소되기 쉽습니다. 이를 동사로 받아들여서 모든 생명체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역동성을 얻어야 합니다.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인간과 같아지시기 위해 먹고, 듣고, 걷는 행위로 뛰어드셨는데, 인간이 이를 다시 추상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 도서 목차

프롤로그

여는 글 -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제1부 먹다

- 무엇을 먹는가 / 먹기 위한 기도 / 성경 속 먹다 / 예수님이 오신 목적 / 최후의 만찬과 혼밥 / 십자가의 목마름 /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제2부 듣다

- 듣는 것과 아는 것 / 들음의 세계, 수동의 세계 / 마리아와 마르다 / 사역과 말씀 사이 / 엠마오로 가는 길

제3부 걷다

- 피스 필그림처럼 걷는다는 것 / 성인들이 걸었던 길 / 예수님의 걷기 / 구도자의 걷기 / 기도 걷기 / 상생의 걷기

달는 글 - 먹고, 듣고, 걷는 교회

■ 책 속의 픽(pick)

- ▶ 우리는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일용할 양식(daily bread)을 주시고”라고 고백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옛날에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지금은 보건복지부나 정치인들이 주려고 합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이 단순한 일용할 양식(daily bread)이라면,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빵을 줄 수 있는 대통령이나 정치인을 찾아가겠지요. 즉, 교회의 복지는 정치나 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복지와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먹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면 교회의 복지 개념도 달라질 것입니다. 18쪽
- ▶ 먹는 것도, 먹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 기도야말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원리이지요. 뭔가를 주고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밥을 먹으면서 감사할 줄 알게 하는 것이 교회에서 해야 할 진정한 복지의 시작입니다. 32쪽
- ▶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그분의 권능으로 맹물

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님을 아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섬겨야 하는 사람들은 결국 죽어야 할 사람들,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도 이 목적을 의식하면서 일탈해야 합니다.

세속적 유구의 세계를 만족시키기 위해 교회가 존재한다고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야기를 잘못 알면, 가나 혼인 잔치에서 일어난 기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는 알지만 정작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모르게 되지요. 56쪽

- ▶ 우리가 사회에게 건네는 빵이 적어도 빈곤과 목마름이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누구이고, 악이 무엇이며, 슬픔이 뭔지 아는 인간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일탈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려는 기독교 복지는 예수님이 권위로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런 유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진정 슬픈 자들, 죽어야 할 자들, 먹고 마셔도 여전히 배고프고 목마른 이들을 구하고 생명을 주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을 육의 세계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야 합니다. 육을 넘어 영적 허기와 목마름을 채워 주어야 합니다. 77쪽
- ▶ 교회가 할 일에는 분명 마르다의 일이 있어

요. 하지만 교회가 사회를 위해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제일 급하고 중요한 것은 정치, 경제가 아니고 생명인 것이지요. 생명을 놓치면 세상을 놓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달려 있어요. 세상으로 나가는 교회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교훈입니다. 113쪽

▶ 저는 한국 교회가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걸어야 해요. 세상 끝날 때까지 걸어야 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오늘과 또 다른 내일이 있어야 살아 있는 것이지, 똑같은 오늘을 되풀이하고 반복하고 주저앉으면 고인물이 됩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교회에 나가는 것, 말씀 공부에 참여하는 것, 이웃을 섬방하는 것처럼 매일 하고 있는 단순하고 지루한 일상일지라도 계속해야 합니다. 걷는 교회가 새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155쪽

▶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전 세계에 이른 과정을 돌이켜 보면, 예수님이 심으신 씨를 인류가 거두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온 평생을 다해 걸으며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육의 양식을 넘어 영의 양식을 들고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함께 빵을 떼고 포도주를 나눠 마시며 사회 속으로, 세계 속으로 온몸을 다 드려 참된 생명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_에필로그 닫기

▣ 프롤로그

1934년 충남 아산에서 태어났다. 대한민국예수원 회원, 문학박사, 문학평론가, 이화여대 석좌교수, 동아시아 문화도시 조직위원회 명예위원장,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화여대 국문과 교수로 30여 년간 재직했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등 여러 신문의 논설위원을 지냈으며, 월간 <문학사상>의 주간으로 편집을 이끌었다. 서울 올림픽 개폐회식과 식전 문화행사, 대전 엑스포의 문화행사 리사이클관을 주도했으며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다.

지성의 문지방을 넘어 신앙의 세계로 들어온 저자는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과 글로 해안을 풀어냈다. 이 책은 그 지혜의 결과물로 원고를 수정하고 보완하기를 여러 해 거듭하여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출간 마지막 과정 중이던 저자는 2022년 2월 89세를 일기로 지성의 세계를 떠나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떠났다.

대표 저서로 《메멘토 모리》,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지성에서 영성으로》, 《의문은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 《생명이 자본이다》,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디지로그》, 《젊음의 탄생》 등이 있고, 소설과 시집, 희곡과 시나리오도 다수 집필했다. | 불행동상

註. 위의 내용은 출판사의 서평과 책 본문의 일부를 최무진 장로(홍보출판부 편집위원)가 편집한 것입니다.



외부 기고문 _ 주제 : 가족

[2] 아프지 않은 가정은 없다

내가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김 병 년 목사
(다드림교회 담임)

연재순서

- 1회 : 하나님이 맺어주신
결혼생활
- 2회 : 아프지 않은 가정은 없다
- 3회 : 가정의 중심축
- 4회 : 먹고 놀고 쉬는 곳

* 제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필자 _ 김병년

시골 강촌에서 3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나 한여름에 농활 온 대학생들의 풍금소리에 이끌려 처음 교회에 발을 들였다. 청구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대구 명덕교회를 출석하며 믿음을 배웠다. 한국외국어대와 장로회신학대학원에서 공부했으며, 대학생 시절 IVF(한국기독교학생회)라는 선교단체에서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한 이래로 15년간 IVF 간사로 섬겼다. 서른한 살에 결혼해 알콩달콩 살던 중 셋째를 낳고 며칠 되지 않아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고, 그 후 지금까지 17년간 자녀 양육과 살림살이와 목회를 병행하며 남다른 제자훈련을 받는 중이다. 아내를 지키는 간병인, 세 아이의 엄빠(엄마+아빠), 작은 교회의 목사, '공 잘 차는' 아저씨, 이 모든 역할을 감당하며 대학졸업생 큰딸, 대학재학 중인 아들, 엄마 목소리 한 번 못듣고 자라 어느덧 고2가 된 막내딸과 더불어 고통 중에도 즐겁게, 아픔 가운데서도 유쾌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있다. 일평생 "예수 잘 믿는 목사" 되기를 바라는 꿈을 품고, 서울 공릉동에 있는 다드림교회를 2005년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섬기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아빠, 우리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아빠는 왜 그렇게 살아?』(이상 비아토르), 『난 당신이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이상 IVP), 『목상과 일상』(성서유니온선교회)이 있다.

근사한 제목을 붙이고 싶었습니다만...

이번 글 제목은 좀 더 멋지게 정해보려 했습니다. “돈 걱정 없는 가정” “자식농사 주 안에서 내 마음대로 된다” “끝까지 잘 사는 부부” “즐거움을 위한 성” “365일 가정예배” 같은 제목 말이지요. 이런 제목들과 비교해 보니, 제 두 번째 글 제목 “아프지 않은 가정은 없다”가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찌하겠습니까. 아픔과 질병, 실직과 재정 위기, 노화와 죽음, 재난과 불의의 사고, 갈등과 싸움... 어느 것 하나 피할 수 없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싱글의 시기를 뒤로하고 결혼을 선택하는 이들은 누구나 풍요롭고 건강하고 화목한 삶을 기

대합니다. 그런데 결혼 이후 정작 삶의 현실에 맞닥뜨리면,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바라지 않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이를 임신하여 태중에 조심조심 품어왔는데 출산일에 사산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잘못된 투자로 인해 온 가족이 경제적인 위기에 내몰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기대와 바람은 모두 부질없습니다. 모든 가정마다 크고 작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입니다.

안정적으로 시작하거나 화려하게 출발한 결혼생활이라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평온한 시간은 짧은 신혼여행처럼 지나가고 격동의 시간이 득달같이 찾아옵니다. 임신과 출산의 순간부터는 삶의 리듬이 달라지고, 주기적인 물가와 집값 상승으로 인해 맘 흘러 일해서 번 수입으로는 가정 경제를 유지하기도 버겁습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이 아니고선 내 집 마련이 어려우니,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거공간을 다시 찾아야 하는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싱글의 삶은 결혼과 동시에 양가 부모님을 넘어 일가친척으로까지 확장되어 시간 사용과 관계 맺기의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넓어진 관계 폭으로 인해 재정 지출에도 지혜가 요구됩니다. 삶의 규모에 맞추어 자녀 교육에 투자할 재원도 마련해야 합니다. 가정이나 관계 면에서 과욕은 어려움을 낳고, 과로는 위기를 불러옵니다. 불시에 찾아오는 재난과 질병은 삶의 질을 밑바닥까지 떨어뜨립니다. 적어도 제게는 그랬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왔는데도 의사소통 부족으로 오해가 생기고 갈등을 겪습니다. 우

리 부부도 권태기적 문제를 겪었고 영적 멘토와 성도들의 도움으로 무난하게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내가 쓰러져 의사소통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내가 중환자가 된 이래, 자녀들의 보호자이면서 아내의 보호자로서 교육기관과 가정의 온갖 필요와 요구를 감당하다 보면 어느새 기력이 소진해 쓰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내몰리곤 했습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깜깜한 밤’

주례가 “새로운 삶을 향하여 출발!” 하고 외쳤을 때 우리는 주저 없이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충만했지요. 둘이 하나 되는 새로운 인생 여정의 첫 찬송가로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를 불렀습니다. 결혼 예배 순서에 넣은 찬송가가 제 일생의 고백이 되고 그 가사가 고스란히 삶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결혼생활 10년 차에 그야말로 ‘깜깜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질병의 험곡에 빠져서 헤어날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대와 흥분으로 불렀던 결혼식 날 찬양이 삶의 생생한 실재가 되어 찾아왔습니다. 고통의 시간들이 찾아오자 이전에는 신나게 불렀던 찬양들이 싫어졌지요. 통제할 수 없는 폭풍처럼 덮쳐온 질병이 삶의 모든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

들었습니다. 가정의 재정 상황을 위기로 몰아갔고, 아내와 함께 누리던 풍성한 관계는 황폐해졌으며, 앞날의 소망은 포말처럼 산산이 부서지고 흩어졌습니다.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캄캄한 밤이었지요. 살면서 찾아오는 소소한 병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기도 하고, 대처법을 알기에 여유롭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쓰러뜨린 질병은 감당할 재간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원인도, 과정도, 결과도 알 수 없어서 한의학에서 ‘풍’(風:바람)이라고 부르는 뇌경색이었지요.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긴 하지만, 사역자로 살면서 늘 재정적 결핍을 겪어 왔습니다. 그랬기에 오히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와병 중인 아내의 다리를 잃은 사고는 견디기도, 이겨내기도 힘들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간병하던 중 다리를 따뜻하게 하려고 덮어준 전기찜질기 과열로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아내는 다리 하나를 잃었고, 남은 다리도 심하게 화상을 입어 90도로 꺾여 버렸습니다. 엮힌 데 덮친 재난은 가족 간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죽이려고 일부러 그랬냐” “건강하게 시집보냈더니 사람 망쳐놨다” “다시는 이 집안에 오지 않겠다” 같은 심한 비난이 제게 쏟아졌습니다. 억울함이 밀려왔습니다. 위로도 모자랄 판에 일방적인 비난이라니요. 이 일로 오랜 기간 왕래가 끊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 참 역설적입니다. 아내가 중병으로 쓰러져 누운 뒤, 우리 가정은 재정적

으로는 오히려 풍요로움(?)을 경험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 제 안에 재정에 대한 담대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분이 일하실 것을 믿으며, 제게 허락된 삶을 사는 데 오롯이 집중합니다. ‘부족한 재정을 채워 주세요’ 기도하기보다는 제게 이미 주신 재정 범위 안에서 삶을 규모 있게 사는 법을 익히려 노력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넉넉하게 공급하셨기에 저도 다른 이들에게 인색하지 않고 힘써 넉넉해지려 합니다. 한때는 헌신을 내세워 저로서는 상당히 큰 금액을 헌금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낫는다는 확신을 갖고 말이지요. 그러나 이런 식의 헌신과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제 삶에 주어진 재정을 규모 있게 사용하기 원하셨습니다. 특히 재정적으로 어려울수록 한탕주의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루하루 일정하게 규모 있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상실과 결핍을 견디며 한탕주의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아픔을 함께하는 공동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아내는 18년째 말이 없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고 요구하지도 못하기에, 다른 환자에 비해 간병하기 쉬운 면이 있습니다. 제 아내와 달리, 가족 중에 육체적으로는 건강하지만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앓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픈 가족을 혼자서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체적인 지원이 필요

합니다. 의료적 처치는 의사에게 맡기되 공동체는 서로 돌아보며 함께 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환자와 그 가족이 버림받지 않도록 함께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는 것이지요. 아픈 가정 곁에서 함께함이 이 세상 어떤 약보다 훌륭한 치료제입니다. 환자 가족이 쉴 수 있도록 공동체가 서로 돌아보면 어려움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성도들이 시간을 내어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함께 머무르려는 수고가 사랑입니다.

가족은 생기를 주기도 하지만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부부의 성격 차이로 이혼 위기에 놓인 가정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삶으로 고통을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언약 안에 우리를 묶어둘 때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서 자신의 삶을 품으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어떤 고통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어려움이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어느 시기, 어떤 일로든 우리는 모두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어려움은 일회적이지 않고 반복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자신의 삶을 힘써 살아가야겠습니다. 결혼은 삶을 엄청나게 복잡하게 만듭니다. 여러 일을 한 번에 처리해야 하거나 우리를 혼돈에 빠뜨리기도 합

니다. 삶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혼돈 속에 질서를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 불렷동상



‘할렐루야’ 는?



우정복 원로장로

성경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용어 중에 ‘할렐루야’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성도들은 ‘할렐루야’의 뜻을 바르게 알고 온전한 찬양을 드리기 바라는 바이다. 그러기 위해 ‘할렐루야’의 뜻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알아보고자 한다.

1. 성경 말씀 가운데 ‘할렐루야’가 모두 27회 사용된다.

- (1) 구약 : 시104:35, 시105:45, 시106:1,48, 시111:1, 시112:1, 시113:1,9, 시115:18, 시116:19, 시117:2, 시135:1,21, 시146:1,10, 시147:1,20, 시148:1,14, 시149:1,9, 시150:1,6 (23회)
- (2) 신약 : 계19:1,3,4,6 (4회) 등이다.

2. ‘할렐루야’는 합성어이다

(참고 : 가스펠서브 저 교회용어사전).

- ▶ ‘할렐루야’는 ①‘할렐’과 ②‘루’와 ③‘야’의 합성어이며
- ▶ ①‘할렐’은 (히)‘할랄’이고, ②‘루’는 (히)‘루’이고 ③‘야’는 (히)‘야흐’이다.

3. ‘할렐’과 ‘루’와 ‘야’에 대해

(참고 : Pictree성경, 가스펠서브 저 교회용어사전)

- (1) ‘할렐’ 인 (히) ‘할랄’은 창12:15, 삿16:24, 삼상21:13 등에서 140여 회 사용됨, 그의 뜻은
- ① '동사형'으로는 ‘찬양하다’ ‘경축하다’ ‘영광 돌리다’ ‘노래하다’ ‘자랑하다’ 등이 되고
 - ② '사동사 형'으로는 ‘찬양하게 하다’ ‘경축하게 하다’ ‘영광 돌리게 하다’ 등이 된다.
 - ③ 또 직접 하나님께서나 아니면 저자 (시인)가 여호와 의 종들에게 이를 ‘찬양하라’ 등으로 표현한 것은 ③명령형이 된다 (참고 : Pictree성경).
 - ④ 그리고 ‘할렐’을 감탄사로 ‘찬양!’으로도 쓰인다 (참고 : 비전성경사전).

- 註¹⁾ 동사의 쓰임의 예 : 벗다, 달리다, 새우다, 운다, 흘리다, 비추다 등 (참고 : 이기문의 동아새국어사전)
- 註²⁾ 사동사의 쓰임의 예 : 먹이다, 읽히다, 살리다 등 (참고 : 이기문의 동아새국어사전, Pictree성경)
- 註³⁾ 명령형의 쓰임의 예 : 받아라, 일어나라, 빨리 가, 이 글을 읽으시오, 일러라 등 (참고 : 신기철, 신용철 편저의 새우리말큰사전)

- (2) ‘루’인 (히)‘루’는 ‘너희’ ‘너희들아’의 뜻이며
- (3) ‘야’인 (히)‘야흐’는 고유명사로 ‘여호와’ ‘주님’ 등의 뜻으로 출15:2, 시68:4사12:2 등에서 44여 회 사용되고 있다.

4. 합성어인 ‘할렐루야’의 뜻과 쓰임 대하여

- (1) ‘할렐루야’의 뜻은
- ① 저자 (시인)가 여호와 의 종들에게 외치는 소리로는 ‘너희들아, 여호와께 찬양하라’ (명령형)가 되나,
 - ②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할 때는 ‘여호와께 찬양!’ (감탄사) ‘찬양하다’ (동사형) ‘찬양하게 하다’ (사동사 형) 등의 뜻이 된다.
- (2) 그러나 쓰임에 있어서는 내가 여호와께 찬양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니고 ‘내가’ 되어야 하나, ‘나’는 생략되어도 되기에 ‘찬양하라’라는 명령형을 동사형인 능동사로 바꾸어 ‘여호와께 찬양합니다’ 또는 ‘여호와께 찬양드립니다.’ 등이 더 올바른 외침의 표현이 될 것이다.

〈참고〉 ▶ ‘기도하라’라는 명령에 따라 기도할 때, ‘기도하라’라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등으로 함과 같이,
▶ 명령형인 ‘찬양하라’도 동사형인 능동사로 바꾸어 ‘찬양합니다’ ‘찬양드립니다.’ 등으로 해야만 할 것이다.
(참고 : 대상 29:20, 시67:3,5)

(3) 히브리어인 ‘할렐루야’를 헬라어로는 이를 ‘알렐루야’ (알렐루이아)로 사용하고 있다.

5. 우리말 성경에서 ‘할렐’인(히) ‘할랄’의 쓰인 사례들 (참고 : 히브리어 성경)

(1) 〈동사〉로의 쓰임

- * ‘찬양하며’ (삿16:24, 대상23:30, 시148:2 등 24여 회)
- * ‘찬양하였더라’ (대상16:36)
- * ‘이름을 자랑하며’ (시49:6, 잠31:28, 사45:25 등 13여 회)
- * ‘찬송하리이다.’ (대상29:13, 시119:162)
- * ‘찬양하는’ (대하23:12, 사38:18)
- * ‘찬양하다(고)’ (느5:13, 시115:17, 시148:5 등 5여 회) 등

(2) 〈사동사〉로의 쓰임

- * ‘찬양하게 하셨으니’ (대상16:4 등)
- * ‘찬송하게 하고’ (대하29:30, 대하31:2 등)
- * ‘찬양(감사)하게 하려고’ (대하7:6, 대하31:2 등)
- * ‘찬송하게 하소서’ (시74:21 등)
- * ‘자랑(칭찬)을 하게 하소서’ (시106:5, 잠27:2 등) 등

(3) 〈명령형〉으로의 쓰임

- * ‘찬양하라’ (시113:1, 시148:7, 렘20:13 등 6여 회) 등

(4) 〈감탄사〉로의 쓰임

- * ‘여호와께 찬양!’의 뜻인 ‘할렐루야’ (시148:14, 시149:9, 계19:1,3,4,6 등) 등이 있다.

6. ‘할렐루야’에 대한 제언

(1) 대상에 따른 그의 뜻은,

- ① 저자 (시인)가, 여호와와 종들에게 사용할 때 :
▶ ‘여호와께 찬양하라’ (명령형)
- ② 저자 (시인)나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할 때 :
▶ ‘여호와께 찬양!’ (감탄사)
▶ ‘여호와께 찬양하다’ (동사형)

▶ ‘여호와께 찬양하게 하다’ (사동사 형) 등이 된다.

(2) 이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 말은 이스라엘에서 예배나 찬송할 때 또는 보통 승리하거나 환호할 때나 감사할 때 ‘하나님께 찬양!’의 뜻인 감탄사로 주로 사용되었다 (시148:14, 시149:9, 계19:1,3,4,6 등. 참고 : 비전성경사전).

(3) 그의 쓰임은,

① ‘기도하라’라는 명령이나 지시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라’라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등으로 기도함과 같이,

② 찬양도

▶ 우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되므로 ‘찬양하라’라는 명령형을 능동사로 바꾸어 ‘여호와께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찬양드립니다.’ 등으로 사용되어야만 할 것이다 (참고 : 대상 29:20, 시67:3,5).

▶ 또 승리한 무리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 부르거나, 감사할 때 하나님께 환호하거나 부르짖는 감탄사로 ‘할렐루야’가 ‘여호와께 찬양!’의 뜻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의 환호와 감사의 감탄인 ‘할렐루야’ 곧 ‘여호와께 찬양!’을 감격과 기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영원히 드려야 할 것이다.

③ 〈찬송가 책〉에서 예를 들면, 찬송가 69장 제10 ~ 12째 마디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가사는, “내가 누구에게 찬양하라”라고 명령하는 말이 되므로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를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등으로 가사를 바꾸어야만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찬양이 될 것이며, 또한 마지막 후렴 부분의 ‘할렐루야’를 ‘하나님께 찬양!’ 또는 ‘주님께 찬양!’이란 환호의 감탄사로 가사를 바꾸어 부르든지, 아니면 그 의미를 알고 뜻을 새기면서 ‘할렐루야’로 불러야 할 것이다.

불렙동상



추천 영화

부활: 그 증거



개요 다큐멘터리, 한국, 99분.
개봉 2020.10. 08.
평점 9.82
줄거리 죽음의 두려움이 영원한 소망으로 바뀌는 시간!
 모든 종교는 죽음 너머의 세상에 관심이 있지만 종교를 가진 사람들조차 죽음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다.

이용규 교수, 배우 권오중, 이성혜는 고통 때문에 다시 태어나지 않기를 소망하는 사람들과 고통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을 찾는다. 인도 바라나시와 첸나이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카타콤. 산 자와 죽은 자들 사이에서 보고 듣는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

현대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 죽어버렸다는 이어령 교수와 이들의 여정은 마침내 말기 암 판정을 받은 후, 80차 항암치료를 하며 부활의 증인이 된 한 사람(천정은)을 만나게 되는데...

제작노트

〈부활: 그 증거〉는 부활을 체험한 사도들의 삶을 추적하는 여정에 동행한 이용규, 권오중, 이성혜의 시선과 국내 최고 석학 이어령 교수가 바라본 ‘죽음’과 ‘부활’에 대한 통찰,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천정은의 삶을 담았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는 ‘죽음’에 대해 출연진들은 자신의 생각과 믿음의 고백을 나누며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선물할 것이다.



먼저 베스트셀러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교수는 부활을 체험한 사도들의 삶을 찾아 떠나는 여정의 안내자로 함께 하며 각 장소에 얹힌 역사적, 성경적 해설을 통해 ‘부활’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그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며 언제나 부르심의 장소로 떠나야 했고, 육체적 죽음의 위기도 여러 번 겪었다. 그는 ‘죽음 앞에서 겸허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죽음을 생각하니 그러지 못했다’고 고백하며 <부활: 그 증거>가 자신에게도 신앙의 변곡점이 될 것을 이야기한다.

배우 권오중은 초신자의 눈높이에서 ‘부활’을 이해하고 전한다. 크리스천 아내를 만나 교회에 출석했지만 신앙이 자라지 못했던 그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던 중 예수를 영접했고, 현재 희귀 질환을 앓는 사람들과 난치병 환자들을 도우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부활: 그 증거>에서 부활의 증거를 탐구하고 만져가며 실체를 찾아가는 구도자로서 관객들과 함께 한다.

배우 이성혜는 헌신된 신앙인의 눈높이에서 사도들의 결단과 부활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2011년 미스코리아 진으로 선발된 후 배우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지만 청소년을 세우고자 하는 믿음의 사명과 건전하지 못한 광고 및 작품 사이에서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보듬어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부활: 그 증거>를 통해 신앙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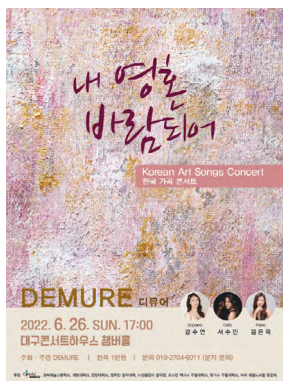
‘시대의 지성’이자 국내 최고 석학 이어령 교수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인문학적 비유로 관객들에게 사고의 확장과 생각의 전환을 불러올 것이다.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등장하는 천정은의 감동 스토리는 관객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처럼 <부활: 그 증거>는 여러 사람들이 느끼고 체험한 ‘부활’을 보여주며, 성경적 지식이나 믿음의 분량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크리스천들이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출처 : 네이버 영화) 물댄동산 편집부 | 불렷동상

우리지역 문화·공연 활동 소개



한국 가곡 콘서트 _ 내 영혼 바람되어

개최일자 2022. 06. 26 (일)

공연시간 17:00

개최장소 대구콘서트하우스 챔버홀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입장가능

공연문의 010-2704-6011 (문자 문의)

주최 / 주관 DEMURE 디뮤어 (소프라노 강수연, 첼로 서수민, 피아노 김은옥)

* 본교회 소프라노 강수연 성도 출연



대구시립합창단 제157회 정기연주회

개최일자 2022. 06. 30 (목)

공연시간 19:30

개최장소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입장가능

러닝타임 약100분

공연문의 053-250-1495

주최 대구시립예술단

주관 대구시립합창단

* 본교회 소프라노 김희주 집사, 소프라노 이영규 성도 출연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

개최일자 2022. 07. 07 (목)

공연시간 19:30

개최장소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입장가능

공연문의 053-250-1400 (ars1번)

주최 / 주관 대구콘서트하우스

오십견(유착성견관절낭염)의 원인과 치료

심대섭 안수집사
(의료선교부,
재활의학과 전문의)



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에 통증 한 번도 겪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상처를 생각할 때 칼에 베이거나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는 걸로 드러나는 상처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눈에 드러나지 않는 근골격계에서는 상처가 늘 생겼다가 치유되기를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작은 상처는 며칠만 지나도 사라지지만, 크게 상처를 입으면 수 주에서 수 개월간 몸과 마음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상처가 생겨서 발생하는 통증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가족들조차 알아줄 수 없고, 이 때문에 한 번 생기면 참으로 힘들고 외롭습니다. 통증이라는 유쾌하지 않은 감각을 삶의 길목에서 마주치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신앙생활에 큰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통증은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성가시고 힘든 것이지만, 통증은 우리 몸이 나에게 보내주는 중요한 신호로서 더 이상의 손상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중 흔하게 통증이 발생하는 부위 중 하나가 바로 어깨입니다.

어깨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움직임을 가진 관절이며, 손을 사용하는 인간에게는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어깨 통증이 생기면 손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일상생활에 제약이 오게 됩니다. 어깨 통증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질환이 회전근개 질환과 오십견입니다. 어깨를 안정화시켜주면서 움직여주는 중요한 4개의 근육과 힘줄을 회전근개라 하며, 회전근개 힘줄에 염증이나 파열이 있을 경우를 회전근개 질환이라고 합니다. 오십견은 50대의 어깨라는 뜻으로 주로 50대에 이 질환이 많이 생긴다 하여 붙여진 별칭으로 다른 말로 유착성 견관절낭염이라고 합니다. 어깨관절 주머니에 염증이 생겨서 주머니가 유착이 되는 병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유착은 부드러운 조직이 엉겨 붙는다는 뜻입니다. 중년 이후, 당뇨병, 갑상선 질환 등의 내과적 질환



이 있을 때, 수술을 받았을 경우, 가벼운 외상에 잘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아직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깨가 뜨끔하는 가벼운 외상으로 시작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통증이 시작되는 시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견갑골(날개뼈)과 상완골(위팔뼈)을 연결해 주는 관절 주머니인 어깨관절 주머니에 생기는 염증으로 인해 초기에는 육신거리는 어깨 통증이 생기며, 점차 육신거

리는 통증이 줄어들면서 관절주머니의 유착으로 인하여 어깨를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팔을 바깥으로 돌리거나 올리고 뒤로 돌리는 동작에 제한이 생기므로 옷을 갈아입거나, 문을 열 때, 안전벨트를 맬 때 힘들며, 운동 범위 제한으로 인해 운동 범위를 넘어서는 움직임에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지나면 자연적으로 호전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모든 환자에서 호전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가동 범위의 제한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 동안 심한 통증과 어깨 동작의 제한으로 생활이 힘들어지므로 조기에 치료를 한다면 유착이 되는 것을 예방하여 유병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치료는 초기에는 심부열 치료 등의 물리치료, 약물치료로 통증을 줄이며, 통증이 심할 경우 관절강 내 주사치료로 통증을 줄이고 유병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관절 주머니가 유착이 되어 관절 가동범위가 감소하게 되면 심부열, 도수치료 및 스트레칭 운동, 관절수압팽창술 등으로 관절 가동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유착기에는 어깨 움직임의 제한으로 목과 견갑골 주위 근육에 통증 유발점이 형성되어 2차적인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일상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한 번 유착이 오면 정상화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유착이 진행되었을 때보다 초기에 치료 기간이 빠르므로 통증이 시작되어 밤에 잠에서 깰 정도가 되면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손을 사용하는 데 있어 기초가 되는 어깨 통증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 물리통상

MZ세대의 언어 알기

김 원 진 청년
(홍보출판부)



물댄동산 3월호에서 MZ 세대의 언어 소개를 했던 것 모두 기억하시나요?

새로운 단어를 더 추가해 2탄을 준비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 MZ 세대가 사용하는 언어도 익히고, 반대로 MZ 세대들이 아닌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도 함께 익혀 세대 간 어우러짐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할많하않

뜻 _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의 줄임말로, 보통 부당하거나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굳이 반박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됨.

유의어 _ 할 말이 없다, 부조리하다 등

비추

뜻 _ ‘비추천’의 뜻. 추천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유의어 _ ~는 별로다 등

복세편살

뜻 _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의 줄임말로, 보통 대학생이나 직장인들 사이에서 주로 사용.

유의어 _ 인생 별거 있나?, 인생무상(人生無常),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

갑분싸

뜻 _ ‘갑자기 분위기 싸해진다’의 줄임말로, 말 그대로 싸해지는 분위기에서 사용함.

유의어 _ 분위기가 너무 차갑다 등

낄끼빠빠

뜻 _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의 줄임말로, 상황에 맞게 행동하라는 뜻을 가짐.

유의어 _ 상황을 보고 행동해라, 선불리 나서지 마라 등

완내스

뜻 _ ‘완전 내 스타일’의 줄임말로, 말 그대로 자신의 이상과 부합한 이상이나 물건을 뜻함.

유의어 _ 의중지인(意中之人), 이상형, 취향 등

머선129

뜻 _ ‘무슨 일이야’를 변형한 말로, 머선일이고 → 머선129가 됨.

유의어 _ 무슨 일이야?, 어떤 상황이야? 등

TMI

뜻 _ 'Too much information'의 줄임말로, 불필요하게 많은 정보를 뜻함.
유의어 _ 너무 많은 정보, 불필요한 정보 등

어쩔티비

뜻 _ '어쩌라고'의 변형어로, 초등학생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
유의어 _ 어떻게 하라고, 어쩌라고 등

점메추 저메추

뜻 _ '점심/저녁 메뉴 추천'의 줄임말로, 메뉴 추천을 받을 때 흔히 쓰이는 말.
유의어 _ 점심 뭐 먹을지 추천해줘, 저녁에 뭐 먹을까? 등

신조어 Quiz! 괄호 안에 들어갈 신조어를 맞추시오.

1번 문제 A : 예배 끝나고 뭐 먹지? 나 () 좀 해 주라.
B : 음... 떡볶이 어때? 같이 먹으러 가자!
A : 그래 좋아!

2번 문제 A : 이번에 새로 나온 삼성 새 휴대폰 어때?
B : 나는 완전 () 야.
A : 정말?
B : 응. 체험판으로 사용해 봤는데 사용감이 별로더라. 실망이었어.

3번 문제 A : 요즘 어떻게 지내?
B : () 이야. 교회 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
A :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B : 요즘 시험기간이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교회 오는 날은 너무 기대되지
만 시험 때문에 힘들어.
A : 시험 잘 볼 수 있을 거야! 힘내.

4번 문제 A : 이번 야외 예배 슬로건 문구 봤어? () 를 사용했더라!
B : 신조어를 사용해서 포스터를 만들어서 너무 재밌었어.
A : 야외 예배 때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지 저 신조어 때문에 궁금해졌어.

5번 문제 A : 이번 수련회 티셔츠 () 야!
B : 그치. 깔끔하고 입기 좋더라.
A : 수련회 때 꼭 입고 참여할 거야. 쿨랭동상

ㄱ.티셔츠 (9) ㄴ.수련회 (7) ㄷ.쿨랭동상 (8) ㄹ.슬로 (2) ㅁ.슬로마포 / 슬로마포 (1) [교류]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 프로젝트

본 지면의 광고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있을 소상공과 자영업자를 하는
교우들을 위해 특별히 한시적으로 기획된 무료광고입니다.

마카롱에반하다

마카롱·커피

양수진 집사 / 대표
010-3146-6872
대구 남구 명덕로170
@caron_love15



마 카 롱 에 반 하 다
MABAN IN DAEGU



명덕우체국 ●

명덕네거리

우리은행 ●

마카롱에반하다

대우기독서적

신앙서적·기독교용품



권재기 장로,
권정훈 집사 / 대표
대구 중구 중앙대로 405, 2층
(중앙로 국민은행대구점,
태왕아너스타워 옆
대한보청기 2층)
053) 252-7537
053) 431-1064

중앙로네거리

●
국민
은행

대우기독
서적 2층

carrot 캐럿 샌드위치 · 음료



이병주 청년 / 대표
010-5822-0480
수성구 수성로 64길 5, 1층 10:00~19:00
@ carrot_sandwich_shop



꿈꾸는작업실 oneandstory



공간대여 / 브라이덜샤워 / 베이비샤워
기념일 / 생일 / 소그룹모임 / 셀프촬영

이재호 집사 / 대표
대구 남구 봉덕로 5길 42-2, 4층
영대병원역 3번 출구 608m
010-8772-8027
100%예약제
@ oneandstory
www.oneandstory.com





스튜디오97

필라테스



하선화 청년 / 대표

대구 중구 북성로4길 55 (인교동 203) 2층

010-9950-8266

09:00~22:00 (주말, 공휴일 휴무)

예약제로 운영

meurii pilates97

https://blog.naver.com/private_pilates

스튜디오97



중앙로역
푸르지오센
트럴아파트

서성네거리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 프로젝트

본 지면의 광고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있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하는
교우들을 위해 특별히 한시적으로 기획된 무료광고입니다.

ON-NA

Message

다시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며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되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선교하는
대구제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illegible]

휴; 2022년 하나님사랑, 가족사랑 사진 콘테스트

홍보출판부에서는 행복한 모습, 은혜로운 모습이 담긴 우리 교인들의 사진을 공모합니다. 각종 수련회, 여름휴가 및 여행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으로 더욱 멋진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시상내용 수상자는 상품권과 함께 액자를 만들어 드립니다.

시 상		상 품 권	시상액자
대 상	1명	10만원 상품권	액자 (11×14)
금 상	2명	7만원 상품권	액자 (11×14)
은 상	2명	5만원 상품권	액자 (8×10)
동 상	0명	3만원 상품권	액자 (8×10)
장려상	00명	1만원 상품권	액자 (8×10)

공모주제 여름휴가 및 여행지 가족사진

참가대상 대구제일교회 교인가족

공모기간 '22. 7. 1.(금) ~ '22. 8. 31.(수)

제출방법 사진파일 홍보부E메일제출 (파일용량 2MB이상 JPEG파일)
가족당 1점 - 작품명, 연락처기재

제 출 처 홍보부E메일 fch.pub@naver.com

문 의 처 010-7232-6188 (안지현 집사)

결과발표 '22. 9. 11. 교회마당 및 개별연락

주최/주관 홍보출판부, 총무부

발 행 인 박창운
지도목사 임병철
부 부 장 양홍철
총 무 허균열
회 계 이상원
편 집 장 안지현
양홍철

편집위원 최무진, 이영숙, 김승훈
이주하, 이경호, 김원진
스튜디오 우제오, 박효운
발 행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구제일교회 홍보출판부
전 화 (053)253-2615 ~ 7
팩 스 (053)253-2618

주 소 대구시 중구 국제보상로
102길 50(동산동)
발 행 일 2022. 6. 26
홈페이지 www.firstch.org
이 메 일 fch.pub@naver.com



대한예수교
장로회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DAEGU

정기예배 및 집회 시간

집회별	시 간	장 소
주일 낮 예배	1부 오전 7:30	대예배실
	2부 오전 9:30	대예배실
	3부 오전 11:30	대예배실
주일 오후 예배	오후 3:00	대예배실
수요1부 예배	오전 10:30	대예배실
수요2부 예배	오후 7:30	대예배실
새벽기도회	오전 5:30	100주년 기념관(4층)
금요기도회	오후 8:00	본당지하 아담스홀
구 역 장 회	(화)오전 10:00	본당지하 아담스홀

기관명	시 간	장 소
영 아 부	오전 11:30	100주년 기념관(2층)
유 아 부	오전 11:30	100주년 기념관(3층)
유 치 부	오전 9:30	100주년 기념관(3층)
초 등 1 부	오전 9:30	100주년 기념관(6층)
초 등 2 부	오전 9:30	100주년 기념관(7층)
초 등 3 부	오전 11:30	100주년 기념관(4층)
초 등 4 부	오전 11:30	100주년 기념관(6층)
중 등 부	오전 9:30	본당지하 아담스홀
고 등 부	오전 9:30	본당지하 베어드홀
청 년 1 부	오후 2:00	본당지하 아담스홀
청 년 2 부	오후 2:00	본당지하 아담스홀
청 장 년 부	오후 1:20	100주년 기념관(2층)
장 년 부	오전 10:40	대예배실
새 가 족 부	오전 10:40	새가족부실(본당2층)

방송설교

극동방송 라디오(FM91.9)

예배실황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7시~7시 40분까지

CBS방송설교

매주 주일 오전 8시 30분~8시 50분



기쁨과 행복을 만들고 은혜를
나누는 홍보출판부

물댄동산 제99호 원고 모집안내

원고 내용

삶과 신앙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하고 느낀 일, 행사 참관기, 간증, 부서활동보고 등 전 교인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시, 수필 형식의 글

제일 논단 기독교, 교회, 신앙과 관련된 다소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글 (필요시 참고문헌 기입)

기 타 「물댄동산」에 게재하고 싶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창의적인 글, 사진, 그림 등

칭찬 한마디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한 성도들의 의견을 모아서 익명으로 실습니다.

원고 분량

A4 1.5페이지 이내, 바탕체, 글자크기 11포인트, 줄 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0

접수 마감

2022년 8월 27일(토) 까지

제 출 처

E-mail : fch_pub@naver.com



또는 홍보출판부 (본당4층), 행정실
카톡접수 : 010-7232-6188 (안지현 집사)

유의 사항

원고 접수 시, 필자의 **프로필 사진**을 반드시 첨부하시오 **원고 관련 사진**이 있을 경우, 함께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접수시 필자의 성함 및 직분, 제목, 연락처를 반드시 표기바랍니다.

원활한 출판을 위하여 원고의 일부 편집 및 교정·수정이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통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원고는 편집부 심의를 거쳐 다음 호에 게재되거나, 출간 목적에 부적절할 경우 게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단동산은 대구제일교회 홈페이지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제일교회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DAEGU

Since 1893. 4. 22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50 (동산동)
Tel : 053-253-2615~7 Fax : 053-253-2618
E-mail : 2532615@hanmail.net www.firstch.org